



Russia & Russian Federation



1. 학술마당

- 특집기사: 러시아 대학입시제도
- 특별기고: 러시아 법률 상식
- 연구노트: 러시아연방 인문공간 연구
- 러시아 파워엘리트 연구
- 스크린 속의 러시아
- 러시아 민족 이야기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년 12월에 발간한 '2011 교육과정 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에 게재된 것을 발췌합니다.

러시아 대학입시제도

김 영 춘 (교육과정평가원)

I. 러시아 대학입학시험체제 현황

1. 시험의 종류 및 성격

러시아 대학입학시험은 현재 크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림피아드로 나누어진다. 러시아의 수능(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은 러시아 연방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국가의 단일 시험제도이다. 수능의 도입 이유는 러시아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적 교육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을 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고,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 교육제도인 5년제 전문가 제도¹⁾는 유럽 및 아메리카의 4+2 교육제도(대학교 4년 + 대학원 2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러시아 학생들의 입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능은 2001년 도입되어 2008년까지 시범시행을 거쳐 2009년 러시아의 대표적인 입학시험으로 도입되었고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인정되었다. 4월부터 7월까지 크게 조기시험 기간, 일반시험 기간과 추가 시험 기간으로 나뉘어 1년에 3번 치러지고 있다.

수능은 연방교육감사원(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는 연방교육평가연구소(Феде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з-

1) 5년제 대학교 교육제도로 학사와 석사과정은 포함되어 있음



мерений)에서 출제한다. 수능은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능은 2001년~2008년 러시아연방 각 주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였다. 2001년 추바시야 공화국, 마리 엘 공화국과 야쿠치야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수능이 시행되었다. 2002년부터는 1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2003년 47개 도시, 2004년에는 65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79개(총 83개) 지역 95만 명의 학생이 수능을 치렀다. 2008년에는 79개(총 83개) 러시아 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수능에 응시했다.

수능의 특징으로는 1) 단일 시행규정, 2) 단일 시간표 도입, 3) 표준형식의 문제사용, 4) 수능 답안지로 특별한 종이 사용, 5) 러시아어 진행²⁾을 꼽을 수 있다.

수능은 러시아 연방의 모든 주체에서 시행되며, 또한 해외의 러시아 대사관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나 러시아연방 군대 산하의 교육기관 등 기타 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올림피아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입시험이다. 러시아 올림피아드의 기원은 이미 19세기 “젊은 학생을 위한 올림피아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1886년 수학 올림피아드를 비롯하여 구소련 시절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가 시행되었다.

러시아 사회에서 올림피아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사회 여러 계층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올림피아드에 입상한 학생들이 위대한 학자나 인재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올림피아드는 9월부터 3월까지 예선과 결선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올림피아드 결선에 입상한 학생에게는 올림피아드의 등급과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권이 주어진다.

- 1) 러시아의 모든 대학교에 입학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다.
- 2)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학생은 수학 해당 과목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3)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입학시험에 만점을 부여한다.

올림피아드는 고등학교 의무과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되며, 대회 난이도와 참가자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진다.

2. 시험 개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대학입학시험은 수학능력시험과 올림피아드로 구분된다. 수능과 올림피아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 수학능력시험 개관

러시아 수학능력시험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시행을 거쳐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수능이 도입되

2) 러시아연방을 이루고 있는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에서는 자체의 고유 언어를 사용함



기 전까지는 대학 자체 내에서 입학시험을 선정하여 볼 수 있었다.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이나 공정성 문제, 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간에 고액과외, 유명 대학교 간에 시험 일정 겹치기 등으로 많은 불만을 낳았다. 후르센코 러시아 교육과학부 장관이 교육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의 수능시험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과도기적이며, 현재도 수능시험 제도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수능은 조기시험 기간(4월 20일~5월 4일), 일반시험 기간(5월 28일~6월 21일), 추가시험 기간(7월 9일~7월 21일)에 거쳐 진행된다.

2009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폐지되면서 대체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맞추어 시험을 본다. 수능에서 러시아어와 수학은 의무과목이며, 지리, 물리, 역사,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생물, 일반사회, 문학,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표는 수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다.

표 1. 러시아 수능능력시험 구성, 배점, 시간

과목명	구성	배점	시간
러시아어	1영역: 30문제(A1 - A30), 4지선다형 2영역: 8문제(B1 - B8), 단답형 주관식 3영역: 1문제(C1), 서술형 주관식 총 : 39문제	1영역: 30점 2영역: B1 - B7: 11점 B8: 4점 3영역: 23점 만점 : 64점	180분
수학	1영역: 12문제(B1 - B12), 단답형 주관식 2영역: 6문제(C1 - C6), 서술형 주관식 총 : 18문제	1영역: 12점 2영역: C1 - C2: 4점 C3 - C4: 6점 C5 - C6: 8점 만점 : 30점	240분
물리	1영역: 25문제(A1 - A25), 4지선다형 2영역: 4문제(B1 - B4), 단답형 주관식 3영역: 6문제(C1 - C6), 서술형 주관식 총 : 35문제	1영역: 25점 2영역: 8점 3영역: 18점 만점 : 51점	210분
화학	1영역: 25문제(A1 - A25), 4지선다형 2영역: 4문제(B1 - B4), 단답형 주관식 3영역: 6문제(C1 - C6), 서술형 주관식 총 : 35문제	1영역: 25점 2영역: 8점 3영역: 18점 만점 : 51점	180분
정보	1영역: 18문제(A1 - A18), 4지선다형 2영역: 10문제(B1 - B10), 단답형 주관식 3영역: 4문제(C1 - C4), 서술형 주관식 총 : 32문제	1영역: 18점 2영역: 10점 3영역: 12점 만점 : 40점	240분
생물	1영역: 36문제(A1 - A36), 4지선다형 2영역: 8문제(B1 - B8), 단답형 주관식 3영역: 6문제(C1 - C6), 서술형 주관식 총 : 50문제	1영역: 36점 2영역: 16점 3영역: C1: 2점 C2 - C6: 15점 만점 : 69점	180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목마다 만점과 시간이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시험 문제, 출제 기관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역사	1영역: 27문제(A1 - A27), 4지선다형 2영역: 15문제(B1 - B15), 단답형 주관식 3영역: 7문제(C1 - C7), 서술형 주관식 총 : 49문제	1영역: 27점 2영역: 19점 3영역: 21점 만점 : 67점	210분
일반사회	1영역: 22문제(A1 - A22), 4지선다형 2영역: 7문제(B1 - B7), 단답형 주관식 3영역: 9문제(C1 - C9), 서술형 주관식 총 : 39문제	1영역: 22점 2영역: B1 - B2: 2점 B3 - B7: 10점 3영역: 25점 만점 : 59점	210분
지리	1영역: 25문제(A1 - A25), 4지선다형 2영역: 14문제(B1 - B14), 단답형 주관식 3영역: 6문제(C1 - C6), 서술형 주관식 총 : 45문제	1영역: 25점 2영역: B2 - B5: 8점 B1, B6 - B14: 1점 3영역: 12점 만점 : 55점	180분
문학	1영역: 12문제(B1 - B12), 단답형 주관식 2영역: 5문제(C1 - C5), 서술형 주관식 총 : 17문제	1영역: 12점 2영역: C1 - C4: 12점 C5: 15점 만점 : 39점	240분
영어	듣기: 14문제(A1 - A14): 4지선다형 1문제(B1): 주어진 조건 독해: 7문제(A15 - A21): 4지선다형 2문제(B2 - B3): 주어진 조건 문법 및 어휘: 7문제(A22 - A28): 4지선다형 13문제(B4 - B16): 주어진 조건 작문: 2문제(C1 - C2): 작문 총 : 46문제	듣기: A1 - A14: 14점 B1: 6점 독해: A15 - A21: 7점 B2: 6점 B3: 7점 문법 및 어휘: A22 - A28: 7점 B4 - B16: 13점 작문: C1: 6점 C2: 14점 만점: 80점	160분
독일어	듣기: 14문제(A1 - A14): 4지선다형 1문제(B1): 주어진 조건 독해: 7문제(A15 - A21): 4지선다형 2문제(B2 - B3): 주어진 조건 문법 및 어휘: 7문제(A22 - A28): 4지선다형 13문제(B4 - B16): 주어진 조건 작문: 2문제(C1 - C2): 작문 총 : 46문제	듣기: A1 - A14: 14점 B1: 6점 독해: A15 - A21: 7점 B2: 6점 B3: 7점 문법 및 어휘: A22 - A28: 7점 B4 - B16: 13점 작문: C1: 6점 C2: 14점 만점: 80점	160분
프랑스어	듣기: 14문제(A1 - A14): 4지선다형 1문제(B1): 주어진 조건 독해: 7문제(A15 - A21): 4지선다형 2문제(B2 - B3): 주어진 조건 문법 및 어휘: 7문제(A22 - A28): 4지선다형 13문제(B4 - B16): 주어진 조건 작문: 2문제(C1 - C2): 작문 총 : 46문제	듣기: A1 - A14: 14점 B1: 6점 독해: A15 - A21: 7점 B2: 6점 B3: 7점 문법 및 어휘: A22 - A28: 7점 B4 - B16: 13점 작문: C1: 6점 C2: 14점 만점: 80점	160분
스페인어	듣기: 14문제(A1 - A14): 4지선다형 1문제(B1): 주어진 조건 독해: 7문제(A15 - A21): 4지선다형 2문제(B2 - B3): 주어진 조건 문법 및 어휘: 7문제(A22 - A28): 4지선다형 13문제(B4 - B16): 주어진 조건 작문: 2문제(C1 - C2): 작문 총 : 46문제	듣기: A1 - A14: 14점 B1: 6점 독해: A15 - A21: 7점 B2: 6점 B3: 7점 문법 및 어휘: A22 - A28: 7점 B4 - B16: 13점 작문: C1: 6점 C2: 14점 만점: 80점	160분



표 2. 러시아 수학능력시험 일정

날짜	과목
조기시험 기간	
4월 20일	러시아어
4월 23일	지리, 물리, 역사, 외국어
4월 26일	수학
5월 02일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생물, 일반사회, 문학, 화학
5월 04일	예비기간: 전 과목
일반시험 기간	
5월 28일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생물, 문학
5월 31일	수학
6월 04일	외국어, 화학
6월 08일	러시아어
6월 13일	지리, 일반사회
6월 16일	역사, 물리
6월 18일	예비기간: 외국어, 일반사회, 생물,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6월 19일	예비기간: 지리, 화학, 문학, 역사, 물리
6월 20일	예비기간: 러시아어
6월 21일	예비기간: 수학
추가시험 기간	
7월 09일	러시아어, 화학,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7월 12일	수학, 지리, 외국어
7월 16일	일반사회, 문학, 물리
7월 19일	생물, 역사
7월 21일	예비기간: 전 과목

수능 시험문제는 연방국가의무교육표준 규정에 따라 개발한 수험생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이다.

수능 문제는 연방교육측정연구소(Феде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змерений)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만든다.

수능 문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로 구성 된다:

A-4지선다형(수학, 문학, 외국어 영역에는 4지선다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음)

B-단답형 주관식(단어나 숫자 기입)

C-서술형 주관식(수학 풀이, 에세이, 논증, 자신의 입장 표명)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능은 조기시험 기간(4월 20일~5월 4일), 일반시험 기간(5월 28일~6월 21일), 추가시험 기간(7월 9일~7월 21일)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또한, 각 시험기간마다 예비기간을 두어 긴급한 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



러시아 수능은 각 기간별로 응시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기시험 기간에 응시 가능한 자

야간고등학교 졸업자 중 군대 징집자

러시아 또는 국제 체육대회, 경시대회, 경연대회, 올림피아드, 토너먼트 참여자

해외이주자, 수능기간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자(의사의 진단서 필요)

· 일반시험 기간에 응시 가능한 자

당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외국인, 무국적자, 피난민 및 이주희망자 중 러시아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교 또는 전문대 입학 희망자

외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추가시험 기간에 응시 가능한 자

당해 초급전문교육기관 혹은 중급전문교육기관³⁾ 졸업자 중, 일반기간에 수능을 응시를 못한 자

외국 교육기관 졸업자 중, 당해 일반기간에 수능을 응시하지 못한 자

작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당해 일반기간에 수능을 응시하지 못한 자

당해 고등학교 졸업자 중, 타당한 사유로 올해 일반기간에 수능을 응시하지 못한 자

당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러시아어나 수학 점수 미달로 졸업시험에 낙제하고 예비기간에 재시험 볼 수 있는 권한을 타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자

타당한 사유로 당해 일반기간에 수능을 응시하지 못한 자

수능에 관한 기타사항

· 수능 통행증

5월 10일 이전 일반시험 기간에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수능 원서 접수처에서 통행증을 발급받는다.

6월 20일~7월 5일 추가시험 기간에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능 원서 접수처에서 통행증을 발급 받는다.

수능 통행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 된다:

수능 응시 과목

수능 시험장 주소

과목별 시험 시간 날짜와 시간

3) 우리나라의 2-3년제 전문대학, 기능대학, 교육대학 등이 해당됨



교육기관과 수능 시험장 코드

기타 정보.

· 수능 시험장

수능은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된다.

수능 시험장은 교육기관이나 기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서 시행된다.

러시아 연방주체의 교육기관은 수능 시험장의 장소를 결정하고, 수험생을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수능 시험장에 관한 정보는 수능 통행증 교부 시 전달한다.

수능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과 수능 통행증을 반드시 가지고 입장한다.

(2) 러시아올림피아드 개관

2010년 12월 3일 발표된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령 제1162호에는 올림피아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올림피아드 진행기간

러시아 올림피아드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9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 된다:

1단계: 매년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참가 또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

2단계: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참가 또는 온라인 형태로 진행

올림피아드 규정

올림피아드 단계는 올림피아드 조직자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단계에는 우승자 또는 수상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러시아 올림피아드 과목은 러시아, 수학, 화학, 지리, 문학, 일반사회, 외국어, 경제, 기술, 정보, 생물, 역사, 물리, 예술, 법학 중에서 단일 과목이나 두 과목 이상이 합쳐져 진행된다.

올림피아드의 기출문제는 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에서 응용하여 4지선다형, 논술 혹은 실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된다.

올림피아드 제정지원은 올림피아드 조직자에 의해 시행되며, 참가자는 무상으로 참가한다.

올림피아드 조직은 러시아 고등학생 올림피아드 위원회에서 맡아서 시행하며, 올림피아드 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



표 3. 2010/11학년도 주요 러시아 올림피아드

주요 올림피아드 명칭	과목	수준
전 러시아 올림피아드 “나노기술과 미래”	나노기술	1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 멘델레예프	화학	1
전 러시아 물리 올림피아드	물리	1
고등학생 공개 올림피아드 “정보기술”	정보기술	1
상트페테르부르크 수학 올림피아드	수학	1
고등학생 텔레비전 인문학 올림피아드 “똑똑한 아이들”	인문 사회학	1
수학 토너먼트	수학	1
물리-수학 올림피아드	수학	1
	물리	1
전 러시아 고등학생 금융 올림피아드	경제, 법학, 금융	3
시베리아 공식 올림피아드	생물	3
	정보학	3
	수학	2
	물리	2
모스크바 올림피아드	화학	2
	지리	3
	언어	3
	수학	1
	정보학	2
로모노소프 올림피아드	물리	1
	화학	3
	생물	2
	지리	3
	지리	3
	외국어	2
	정보	3
	역사	1
	문학	2
	수학	1
	국제관계	2
기계학	3	
일반사회	2	
법학	2	
러시아어	1	
신문방송	2	
물리	2	
철학	3	



로모노소프 올림피아드	화학	2
	심리학	3
참새언덕 올림피아드	생물	3
	지리	3
	외국어	2
	역사	2
	문학	3
	수학	1
	일반사회	2
참새언덕 올림피아드	물리	2
	화학	2
로모노소프 토너먼트 올림피아드	천문학	3
	생물	3
	역사	3
	언어	3
	문학	3
	수학	3
	물리	3
	미술	2
	생물	2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올림피아드	지리	1
	외국어	2
	역사	2
	일반사회	2
	법학	1
	물리	2
	언어	3
	수학	3
수학 인터넷 올림피아드	지리	3
	정보	3
시베리아 대학교 올림피아드	물리	3
	화학	3
	정보기술	1
공개 올림피아드 "정보기술"	정보기술	1

올림피아드의 기술적 업무와 학문적 업무는 러시아 총장 연맹에서 주관한다. 러시아 총장 연맹의 참여자는 러시아 총장 연맹의 제안에 따라 러시아 총장 연맹 위원을 임명한다.

올림피아드 조직자는 조직위원회, 시험문제출제위원회, 심사위원을 1년 이하 기간으로 임명한다.

시험문제출제위원회는 올림피아드 단계별 문제, 채점기준, 시행규정, 학생들의 이익제기 방법 등을 제정한다.



올림피아드 심사위원회 권한

올림피아드 문제는 심사위원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 한다.

- 1) 올림피아드 문제 심사 및 평가
- 2) 우승자와 수상자 결정
- 3)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시험문제 선정

올림피아드 참가자

올림피아드는 고등학생들이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대회에서 참가자 제한을 둘 수 있다.

올림피아드 마지막 결선에는 고등학생 참가자 중 전 대회의 우승자 혹은 수상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올림피아드 우승자 및 수상자는 각 단계별 참가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올림피아드 결선의 결과에 따라 우승자와 수상자가 결정된다. 올림피아드 우승자는 1등급 상장을 받게 되며, 수상자는 2등급 또는 3등급 상장을 받는다.

올림피아드 우승자 및 수상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를 대표하여 국제 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수 있다.

올림피아드 우승자와 수상자는 대학교 입학 시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 1) 고등교육 기관에 올림피아드에서 수상 과목과 일치하는 학과에 입학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다(올림피아드 수상과목과 일치하는지는 대학교에서 미리 지원가능 과목을 발표한다.)
- 2) 올림피아드 수상자에게 수학 해당과목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3)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과목에 만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2010/2011학년도에 러시아에서는 총 77개의 올림피아드가 진행되었다. 주요 올림피아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11월 1일 이전에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는 올림피아드의 명칭, 진행될 과목과 조직자를 발표한다. 다음해 5월 10일까지 올림피아드의 등급을 발표한다. 올림피아드의 등급은 3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수준별로 다른 특혜가 주어진다.

올림피아드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참가자 수로 구분된다.

표 4. 올림피아드 등급

등급	정의
1	매년 올림피아드에 20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주체에 3,000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참가한다.
2	매년 올림피아드에 10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주체에 1,500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참가한다.
3	매년 올림피아드에 3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주체에 300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참가한다.



3. 대학입학시험 일정

(1) 수능능력시험 일정

날짜	사항
1. 수능능력시험 기간 전	
2010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연방주체의 행정부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자신의 포털 사이트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능 원서접수처를 발표
2월 1일까지	대학교 및 전문대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나 입학 접수처 정보 게시판에 시험 준비, 전형별 시험, 입학시험에 대하여 공고
3월 1일까지	일반시험 기간(5~6월)이나 조기시험 기간(4월)에 응시할 수험생은 원서를 제출
5월 25일까지	교육 위원회에서 올해 수능 응시자 파악
6월 20일 ~ 7월 5일까지	수능 추가 기간에 응시할 수험생 원서 제출
2. 수능능력시험 진행 시기	
4월 20일 ~ 5월 4일	수능 조기시험 시행
5월 28일 ~ 6월 21일	수능 일반시험 시행
7월 9일 ~ 7월 21일	수능 추가시험 시행
3.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입학전형 발표	
7월 1일까지	대학교 전공별 모집인원과 장학생과 비장학생 정원 발표 추가입학시험 규정 및 이의제기 발표 기숙사 및 기타 사항 소개
7월 20일까지	대학교 수능과목별 지원가능 최소점수 발표
7월 20일~30일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졸업장 및 수능 성적표 교부
7월 20일까지	원서접수 시작
7월 5일	전공별 추가시험접수 마감
4.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서류 접수 진행(우편접수)	
7월 5일	수능 외에 대학교에서 학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추가입학시험 원서 접수
7월 10일	수능 외에 대학교에서 학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전공시험 원서 서류 접수
7월 25일	수능만으로 입학하는 학생 접수 시작
7월 25일까지 ⁴⁾	대학교 입학시험 시행
5. 대학 입학	
1단계	
7월 27일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나 원서 접수처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과 성적 발표
8월 4일	합격자 원서 접수
서류 접수를 기일 내에 하지 못한 경우나 학과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대학교 입학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별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4)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입학시험은 7월 25일까지 끝나야 한다.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서접수 기간과 아간대학교 원서접수를 정할 수 있다.



2단계	
8월 5일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나 원서 접수처 게시판에 입학접수처 책임자에 의해서 인증된 추가 모집 인원과 비장학생 인원 선발
8월 9일	추가 인원 원서 접수
8월 10일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나 원서 접수처 게시판에 입학접수처 책임자에 의해서 인증된 합격자 명단 발표
학생 정원이 부족한 학과는 개별적으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3단계	
9월 1일	9월 1일까지 학과별 학생모집 및 추가 학생모집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다.
전문대학교 입학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나 원서 접수처 게시판에 학교 입학시험 기간 발표(필요한 경우) 및 접수자 명단 발표.	
5일 동안	학과별 입학시험에 관계없이 수능능력시험 결과로 입학하는 학생 발표
7일 동안	학과별로 진행된 입학시험 결과 발표
10일 동안	입학 신청

(2) 러시아 올림피아드 일정

러시아 올림피아드의 진행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9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매년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단계는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010/2011년도에는 총 77개의 올림피아드가 진행되었으며, 각 대회에서 응시자격과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4. 기타

(1) 러시아 수능능력시험에 대한 의견

2009년부터 수능이 대학교 입학시험이 되면서 아직도 러시아 사회에는 비판의 소리가 많다. 수능에 대한 의견을 학생,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나누어 들어보았다.

학생들의 의견

학생들은 수능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수능이 대학교 입학시험으로 도입되면서 대입의 길이 수능만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입학시험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이기도 하다는 데서 학생들이 강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능을 1년에 1번을 보는 것보다 3-4번으로 늘리고, 성적은 학생에게만 우편으로 발송해서 학생이 스스로 어떤 시험성적으로 응시할 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학교나 학부모에게도 학생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대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과 졸업시험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다.

고등학교 의견

고등학교는 수능 도입 이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기관, 대학교, 학부모가 모두 간섭하기를 원하며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수능의 국어와 수학으로 대체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수능 위주로 실시하기를 원하거나 교사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결석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대학교 의견

대학교는 수능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대학교는 준비되지 않은 학생을 대학교로 보내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이 수준이 낮아 교육의 질을 낮춘다고 생각한다.

(2) 러시아 올림피아드에 대한 의견

러시아 올림피아드가 1886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러시아 사회에서는 이미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긍정적 의견

올림피아드 결선의 우승자나 수상자는 대학교나 전문대에 입학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올림피아드 시스템은 이미 학계나 고등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자들은 올림피아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장래에 자신의 분야에서 훌륭한 학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올림피아드 우승자는 러시아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올림피아드를 통해 재능 있고 뛰어난 아이들만을 선발할 수 있고, 아이들이 경쟁을 통해 실력을 더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부정적 의견

학생들이 올림피아드에 입상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입상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신감을 잃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이 1, 2, 3단계로 이어지는 대회와 국제 대회 참가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제8호부터 일반인들이 러시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미르 소속 변호사들이 '러시아 법률상식'이라는 코너를 통해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혹은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과 무역거래 관계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연방의 WTO 가입과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고찰

김 영 옥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최 근 국제 스포츠의 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5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2018년 월드컵 유치 등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만 보더라도 세계 최대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국가에 해당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대회의 유치를 앞두고 급박하게 4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경기장을 월드컵 개최 도시마다 새로 건설 및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영경기장 등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건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추세에 힘입어 러시아는 최근 연방 정부조달 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부 입찰정보를 내보내고 있으며, 이에 관심을 가지는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각 지방 정부들도 앞다투어 연방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장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정부는 모스크바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도권 개발을 목적으로 모스크바 경제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인접한 모스크바 주(Moscow Oblast)의 관할지역 1,480km²를 합병, 기존 면적의 2.3배를 확장하는 '신 모스크바' 건설을 발표¹⁾, 이에 따른 입찰공고들도 시장에 상당수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정부조달 및 입찰과 관련된 러시아연방 법령을 살펴보고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서 '복수국간 무역협정'²⁾인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지난 2012년 7월 1일부로 모스크바 시정부는 신중심지 건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 '신모스크바 건설' 계획을 구체화 한바 있습니다.

2)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년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 무역협정' 중의 하나이다. '복



WTO의 정부조달 협정은 다른 WTO 협정과 동일하게 내국민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은 자국산 물품과 서비스 또는 자국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채택되거나 국내의 물품과 서비스 또는 국내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어서도 안됩니다. 또한 외국산 물품 또는 서비스에 또는 외국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차별을 두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WTO 정부조달 협정에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조달 기관은 기술규격을 가급적 국제적 표준에 의해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반드시 일정기간 이전에 공고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 공용어의 하나로 요약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이 진행되는 동안 조달관련규정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 체결결과를 일정기간 공개해야 하며 비경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³⁾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WTO 정부조달 협정에 체약국이 되었다면 이에 준하는 법이 제정 및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WTO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WTO의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즉, 러시아연방이 WTO에 가입 비준한 후 최소 4년간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유예를 선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정부는 2005년 7월에 제정한 “연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의 조달, 용역의 제공, 사업의 수행 등 정부조달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연방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찰참여자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내 외국인 비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조달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설명서 등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의 신청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 규정상으로는 WTO 정부조달 협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설 및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인 고용의무 및 자국산 사용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적인 국가 안보상의 제한 등에 대한 예외만을 인정하는 WTO 정부조달 협정보다는 예외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연방은 WTO가입을 준비하면서 정부조달 및 경쟁입찰 등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법 상으로는 절차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에서 공고되는 각종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 만합니다. 이런 정부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러시아연방 정부조달 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⁴⁾.

수국간 협정은 WTO 설립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기타 부속협정과 달리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들에 대해서만 'WTO 설립협정'의 일부가 됩니다

3) WTO GPA협정 및 박영숙,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087> 2012년 11월17일 검색 내용 참조

4)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размещении заказов : <http://www.zakupki.gov.ru/wps/portal/base/topmain/home> 참조

러시아의 부동산소유권 제도

배 정 한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부동산인 건물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같은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므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예를 들어, 독일 민법은 지상의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보아 별도의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민법상으로는 건물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동독의 토지법 하에서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인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소유권이 허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독일통일 이후에 별도의 건물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독일에서는 이른바 ‘물권관계정리법’에 따라 지상 건물을 소유한 토지이용자에게 해당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이용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구동독과 마찬가지로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토지는 국유가 원칙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오직 토지이용권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자가 설치한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이용자에



게 귀속되어 그에 대한 상속과 양도가 보장되었으므로 사실상 토지소유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건물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에서 토지 소유구조를 개혁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민법 제1부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정과 토지법의 제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구조의 개혁 이후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러시아 민법 및 토지법의 태도는 위에서 말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부동산소유권 제도를 절충한 것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민법은 지상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보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 독일 민법과 달리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30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 이들 권리의 제한, 발생, 이전과 소멸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통일국가등기부에登記되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통일국가등기부 상에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登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거래에 대한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12조). 그러나 건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법과 달리 러시아 민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역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민법 제273조)고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 토지법은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한 경우 지상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을 양도할 수 없다(토지법 제35조 제4항)고 규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분리양도성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토지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건물의 일부양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토지의 일부를 실제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 금지된 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토지법 제35조 제4항).

이와 유사한 절충적인 부동산소유권 제도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민법 제117조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종류에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거래에 대한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기부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토지법도 역시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역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제52조 제2항)고 하고, 지상 건물의 양도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동조 제3항)고 하여 토지와 건물의 분리양도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 토지법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분리할 수 없다(제52조 제1항)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저당권에 관하여

정지현 (법무법인 미르 변호사)

담보물권이란 물건 또는 기타 재산권의 교환가치를 확보하여 채권자의 채권실행이 용이하게 하는 물건 등에 대한 지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담보물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물건 기타 재산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만 지배적인 권리를 가지고,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으로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보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저당권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저당권과 비교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민법에서 담보물권의 일반론을 규율하고, 저당권에 관하여는 저당권법을 두어 세부사항은 저당권법에서 규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여야 하고, 이 계약에는 담보의 목적물, 목적





물의 가액, 피담보채권의 성질, 피담보채권의 액수와 이행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계약은 공증을 받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가 됩니다(러시아 민법제 339조).

우리나라의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설정계약을 체결함은 동일하나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공증받거나, 이를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종물에도 미치게 됨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또는 건조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또는 건조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토지 또한 저당권 설정자의 소유인 경우), 임차권에 저당권을 저당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동법 제 340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건물에만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토지의 지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신축중인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 또는 건조물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동법 제340조). 이미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또는 건조물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미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건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또는 건조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신축된 건물 또는 건조물을 토지와 함께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가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담보물의 처분을 결정하여 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유저당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들이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저당권자가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지급받는 방법 역시 허용됩니다.

2011년 말 2012년 초

러시아의 반정부시위, 정말 중산층이 주도했을까?

최 우 익 (한국외대 HK교수)

2011년 12월 4일 러시아 의회 선거 다음날 모스크바와 몇몇 대도시에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일어났다. 그 후로도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는데,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하루에 그 규모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했다. 그러한 시위는 지난 20년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분위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겨울과 봄 내내 일정한 D-day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속되었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푸틴 지지 시위 역시 2012년 2월을 중심으로 대규모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한편으로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전혀 뜻밖의 것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이 사태는 러시아 내부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학자 등 각계각층이 관심을 두고 갖가지 해석과 예측을 내놓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최근까지도 러시아에서 사회적, 정치적 불만과 저항이 시민적 연대나 시민운동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별로 믿지 않았다. 1991년 보수파 쿠데타, 1993년 의회 사태 등의 사례가 있지만, 그 경우 야당 등 정치권이 주도하다가, 이에 시민이 가세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시민이 더 주도적이었고, 야권이나 시민운동가들이 이를 뒤쫓은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시위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이 글은 그동안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현상의 주역인 반정부 시위자들의 사회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수도권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이 시위가 벌어졌는바, 시위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단, 여기서 푸틴 지지 시위자들은 논외로 한다. 이 경우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 동원된

성격이 짙으므로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시위자들의 사회적 초상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일어난 초기에 언론은 이들을 중간계급이나 부유층으로 많이 묘사하였다. 시위자의 캐릭터를 묘사한 한 언론 기사를 보면,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편이며,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25~34세 사무원 등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만 사실이다.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Левада-Центр)가 모스크바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다.

나이, 성, 교육: 12월 10일 치스티예 프루디(Чистые Пруды)와 볼로트나야 광장(Болотная площадь) 집회 참가자들은 청년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12월 24일 사하로프 대로(Проспект Академика Сахарова), 그리고 2월 4일 야키만카 거리(Улица Большая Якиманка) 행진과 두 번째 볼로트나야 광장 집회에서는 대다수 참가자가 중간 연령대였다. 젊은 층(18~24세)은 약 1/5 정도였고, 노년층(55세 이상)도 1/5 정도였다. 고등교육자는 약 80%였으며, 남성이 약 65%였다. 현실의 실제 비율로는 러시아 전체 고등교육자는 약 1/3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따라서 고등교육자와 남성이 실제 비율보다 더 많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질적 수준: 다음과 같은 질문의 응답 비율로 시위 참가자들의 사회계층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림 1. 모스크바 2011년 12월 10일 (출처: <http://traditio-ru.org/wiki>)

‘비싼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자동차 사기는 어렵다’는 집단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약 40%였다. ‘자동차도 살 수 있다’는 집단은 약 1/4이며, ‘필요한 것 모두를 살 수 있다’는 집단은 3~5%였다. 이 세 집단을 모두 합치면 약 70%가 된다. 현실의 실제 비율로는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약 50%를 점하고 있으며, 전 러시아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22%를 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 비율보다 더 많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비교적 풍요로운 집단의 시위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산층이 중산층다우려면 자동차 구매력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해석한다. 물론 자동차 가격도 최대 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 모두를 하나의 계층으로 묶을 수는 없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집단도 적지 않게 시위에 참여하였다. ‘식료품 구입비도 부족하다,’ ‘식료품은 살 수 있지만, 의복을 구입하기는 힘들다,’ ‘식료품과 의복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응답한 시위 참여자의 비율은 약 30%를 점했다. 현실의 실제 비율로는 수도권에서 이들은 약 50%이며, 러시아 전체에서는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풍요롭지 못한 사회계층은 실제 비율보다 시위에 덜 참여하였다.

풍요로운 집단이 자신의 실제 비율보다 더 많이 시위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 혹은 매우 다양한 사람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중산층은 그 중 일부를 이루었을 뿐이지, 그들이 압도적이었거나 주도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군중의 상당수가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깃발, 슬로건, 요구 사항을 내걸었으며, 옷차림들도 다채로웠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TV를 통해 이 사태를 지켜보았을 때는, 그것은 마치 부자들의 행진처럼 보였다고 한다.

정보 소스: 시위자들이 집회에 관한 중요 정보를 얻는 소스는 인터넷(약 70%), 친구와 지인(1/3), 라디오(1/4), 그다음으로 TV(17~18%)와 신문(15~18%) 순이었다(복수 응답 가능). TV가 시위에 관해 부분적이거나 보도하기 시작했지만 이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평소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전반에 관해 TV(81%)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약 13%만이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

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이번 시위 사태에서는 인터넷이 국민들의 주요 정보원으로 급속히 부각된 것으로 평할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대체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집단일수록 시위에 더 많이 참여했고, 이 속에는 중산층도 속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시위 사태에는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다 참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규모 있는 시위가 일어난 지역들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다.

반정부 시위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011년 12월 겨울에서 2012년 9월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었지만, 지방에서는 사실 올해 3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60여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보통 일컬어지는 시위의 시점은 2011년 12월 10일, 12월 24일, 2012년 2월 4일, 3월 5일이다. 규모가 큰 시위일수록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이것이 이번 시위 사태의 주요 특징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글에서는 규모가 천 명 이상이었던 시위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60여 지역 중에서 천 명 이상 참가한 시위가 1회 이상 있었던 곳을 추려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27개 지역이다. 이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이들 대



표 1. 주요 반정부 시위지역 중산층과 극빈층 비율

연방 관구	주	시위규모 (명)	중산층 (%)	극빈층 (%)
평균	-	-	33	12.6
중앙	브란스크 주	1,000	26	13.6
	보로네시 주	1,000	22	19.1
	야로슬라블 주	1,000	26	12.8
북서	모스크바시	150,000	46	10.0
	아르한겔스크 주	2,000	23	14.3
	블로그다 주	1,000	20	17.0
	칼리닌그라드 주	1,000	27	12.6
남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5,000	45	8.7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1,500	29	15.6
	볼고그라드 주	2,000	24	13.4
볼가	바시코르투스탄 공화국	1,000	35	12.0
	타타르스탄 공화국	1,000	41	8.0
	우드무르트 공화국	2,000	22	14.6
	추바시 공화국	2,000	17	18.7
	페름 변경주	2,000	32	13.8
	키로프 주	1,000	22	14.1
	니제고로드 주	1,500	29	12.5
	사마라 주	4,000	33	15.1
	사라토프 주	2,000	20	16.9
	울리아놉스크 주	1,000	23	17.0
우랄	스베르들롭스크 주	10,000	39	10.1
	튜멘 주	1,500	51	12.5
	첼랴빈스크 주	2,000	34	10.4
시베 리아	알타이 변경주	1,500	12	24.3
	노보시비르스크 주	6,000	26	16.7
극동	툼스크 주	4,000	22	17.4
	연해주	1,000	22	16.3

부분은 해당 지역의 주도이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 주민은 주마다 자신의 주도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 분석 대상인 27개 주와 해당 도시의 인구 규모 순위는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볼 때 대부분 상위권에 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과 해당 주도일수록 전국적으로 규모 있는 시위가 대체로 발

생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자 비율을 필자가 계산하여 추산한 지역별 중산층 비율(최저생계비 대비 3.5배 이상의 소득자로서 이들은 중상층 및 상층에 해당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중산층 비율 순위의 구간을 1~27위, 28~55위, 56~83위로 동일하게 지역을 삼등분했을 때, 이 글의 분석대상 지역 중에서 중산층 고비율 지역(1~27위)에 해당하는 곳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튜멘 주 등 모두 11개 지역이다. 이들은 중산층 비율이 28% 이상 되는 곳이다. 중비율 지역(28~55위)은 중산층 비율이 22~27% 되는 곳으로서 이 글의 분석대상 지역 중에서는 칼리닌그라드, 브란스크, 야로슬라블, 노보시비르스크 주 등 12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저비율 지역(56~83위)은 중산층 비율이 21% 이하 지역으로서 블로그다, 추바시, 사라토프, 알타이 주 4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표1 참조)

이렇게 볼 때 시위 규모가 컸던 27개 지역 중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약 41% 정도이고, 중산층 비율이 중간 정도인 지역은 약 44% 정도로서 후자의 비중이 좀 더 크다. 따라서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정선거 규탄시위 지역 중에서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중산층 중비율 지역의 중산층 비율은 22~27%인데, 이는 러시아 평균인 33%보다 꽤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12개 지역은 극빈층(해당 지역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 비율이 모두 러시아 평균치인 12.6% 이상이다. 따라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일어났던 지역들 다수가 중산층 중심의 지역사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중산층 저비율 지역인 블로그다, 추바시, 사라토프, 알타이 네 곳을 포함하여 보로네시, 울리야놉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톱스크, 연해주 등 9개 지역은 극빈층 비율이 약 16~25%에 달할 정도로 높다.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극빈층 비율 순위의 구간을 동일하게 삼등분했을 때, 극빈층 고비율 지역의 극빈층 비율은 16% 이상인 지역이다. 즉, 이러한 극빈층 고비율 지역이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규탄시위 지역 27개 중 1/3이나 된다. 이 중 추바시, 사라토프, 알타이, 노보시비르스크, 톱스크 등지에서는 시위 규모도 컸다. 이처럼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동참한 지역 중에 극빈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물론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이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대규모 시위는 가시적 효과나 파급력이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두 개 도시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러시아의 여타 지역을 동등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두 곳에서처럼 중산층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의 대규모 시위는 분명히 중산층 주도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 규탄시위 지역 중 이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는 중산층 주도성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극빈층 비율이 높은 지역들 다수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 *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전개된 러시아의 반정부 시위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가했다. 수도권 대도시나 석유·가스 생산지인 튜멘 주 등의 시위는 중산층의 주도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중산층 주도성이 강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극빈층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스크바 시위의 경우에도 중산층 외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집결했기 때문에 이번 시위 사태가 전반적으로 중산층 주도성이 강했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러시아 전체 국민의 정치적 참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주도성이 이번 시위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중산층 자체가 아니라, 러시아 국민이 얼마큼이나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며 참여의식을 갖게 되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사태는 러시아 시민사회 형성 가도에 청신호를 밝혀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 모스크바 지역 상업용 건물 건축과 분양

김 선 래 (한국외대 HK연구교수)

2012년 상반기에만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에서 약 20만㎡의 오피스 면적이 신축 분양되었다. 그러나 2012년 신규건축 총 규모는 2011년 대비 상당부분 감소했다. 그 이유는 투자에 있어 정책적인 조건들이 달라진 면과, 2008년 이래 지속되어온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어 건설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표2에 의하면 지금까지 건설된 총 오피스 면적은 대략 1,150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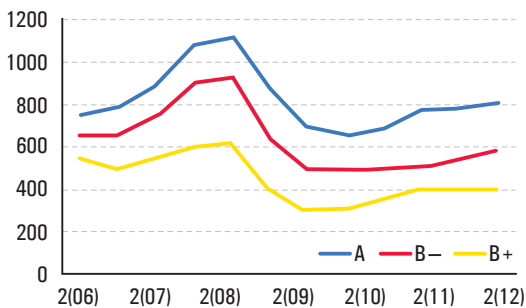
공급된 물량이 줄어든 반면 시장에서 오피스에 대한 임대와 매매수요는 상승하였다.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A급 오피스의 경우 8-10% 가까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고, B급 오피스의 경우 9-11% 가까운 초과수요가 발생하였다. 모스크바 지역에서만 약 50만㎡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다. 그중 55% 정도는 오피스 임대 문의였고 45%는 구매 문의였다. 특이한 점은 임대문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B그룹 중 B+급의 경우 40% 이상 임대문의가 급증하였으나 B-급은 35%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수요자들이 좀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오피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2012년 상반기 오피스 가격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임대료는 지역과 오피스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5-10%의 완만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금 현재는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피스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오피스 시장에 있어서 물량의 부족은 시장경기 활성화에 따른 오피스 수요의 증가라는 측면보다는 오피스 분양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부족이 더 큰 원인이다. 오피스 신규건축 물량은 2012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장에 대대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지역 계획으로는 65만㎡의 오피스 신축을 통하여 기간 내에 시장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1년 한해 공급된 오피스 건설 물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기간 내에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



반기 오피스 구매문의 중 60%가 면적 500㎡ 이하 매물이었다. 이러한 수요 경향은 2011년과 비슷하다. 2012년 오피스 분양 임대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시장상황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소규모 평형의 오피스 분양 시장은 소형을 찾는 실수요자의 증가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시장 내 공급물량도 줄어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시장 내 거래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1,500㎡이상의 대형평형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평형 오피스 분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들은 회사 사육을 준비하려는 큰 기업체나 투자자들이다. 전반적으로 2011년 이후 오피스 시장 상황은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2012년 이후 오피스 임대분양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많은 오피스 건축이 계획되고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는 오피스건설과 분양시장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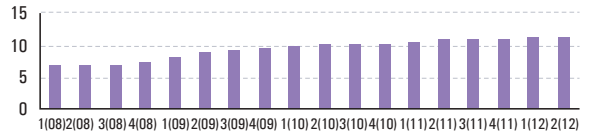
2012년 상반기 오피스 평균 임대료는 A급 650

표 1.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모스크바 지역의 오피스 임대가격 변화 (\$/㎡)



Источник: данные компании Blackwood

표 2. 2008년 이후 러시아 오피스 시장에 공급된 총 물량(백만㎡)



Источник: данные компании Blackwood

~1,800\$/㎡, B+급 450~1,000\$, B-급 380~900\$이며 관 리비는 A급 70~200\$, B+급, B-급 의 경우 60~130\$ 이다. 오피스 분양가격은 장소와 상태에 따라 가격차 이가 많이 나지만 A급의 경우 6,600~19,000\$, B+급, B-급의 경우 4,000~10,000\$이다.

2012년 러시아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 외국기업 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상반기 터키 회사 RGY는 러시아 부동산 시장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Atrium European Real Estate 회사는 2억 1천만 유로를 러시아와 폴란드 지역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핀란 드 투자회사인 Sponda Plc은 오피스 건물인 «Бах- рушинский дом»에 4천 700만 달러를 투자하였 다. 특히, 터키 회사인 Renaissance Construction은 모 스크바 내 대단위 비즈니스 상업지구인 ‘Москва- Сити’에 33만㎡ 규모의 오피스 건물에 11억 달러 를 투자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2012년 러시아 오피스시장 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러시아 거시 경제 적 차원에서 러시아 루블 환율의 급속한 변동이나 국제석유가격의 하락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러시아 국내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상반기 동안 모스크바에 공급된 상가의 총면적 은 5만㎡이며 이중 임대 목적 상가는 2만 6천㎡이 다. 상반기 상가 거래량은 6백만㎡이며 이중 임대 거래는 3백만㎡이다. 모스크바시에서 상가건물은



표 3. 2012년 상반기 모스크바 내 건설된 오피스

시행사	건물명	총면적	주소
임대			
GroupM	비즈니스센터 (리겐다)	10,000㎡	Цветной бул., 2, вл. 1
ОАО«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비즈니스센터 (노보스파스키 궁전)	4,813㎡	Дербеневская наб., 7
Tele2	비즈니스센터 (올림픽 파크)	4,690㎡	Ленинградское ш.,39
Panasonic	비즈니스센터 (샤블로프카 31)	3,188㎡	Шаболовка, 31
Jones Lang LaSalle	비즈니스센터 (비발디 플라자)	3,000㎡	Кожевническая, 8/4
분양			
O1 Properties	비즈니스센터 <두캇 플레이스 3>	33,079㎡	Гашека, 6
O1 Properties	<블쎬비크>	55,000㎡	Ленинградский просп., 15
Стройгазконсалтинг	비즈니스센터 (바쉬나 2000)	15,000㎡	Тараса Шевченко, 23 А
Альфа-Банк	비즈니스센터 (파스칼)	23,000㎡	Андропова, 18, корп. 3
Группа «Бин»	<카미트>	63,880㎡	Тверская, 22

Источник: данные компании Blackwood

모스크바 인구 1,000명당 294㎡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012년 상반기 러시아 지방의 경우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 계획됐던 대형 상가 8곳, 75만㎡ 규모의 상가건물이 건설되었다. 이들 상가 중 크라스노다르스크에 건설된 주식회사 '몰'은 전자제품 전문매장으로 개장하였다.

2012년에 건설 계획을 발표한 대규모 상가건물은 세 곳이며 이중 한 곳은 주식회사 Mill-House가 추진하는 지하철 스크코보에 세워지는 10만㎡ 규모의 상가건물이다. 나머지 두 곳은 그룹 크로쿠스가 추진하는 상가 건물로 쿤체프 지역과 크로쿠스 시티에 건축된다. 총면적만 50만㎡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건립될 예정이다. 모스크바 이외 지방에서의 상가신축 또한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큰 규모의 시행사들이 70만㎡ 규모의 상가건물을 건축 분양할 계획이다.

2012년 상반기 러시아 시장으로 프렌차이즈 형태의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제빵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제빵업체 'Paul'사와 장난감 유통 상점들을 거느리고 있는 영국의 'Hamleys', 목욕비누제품의 유통망과 상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인 'Bath & Body Works', 어린이용품점인 영국기업 'Mamas & Papas', 네델란드 기업인 'Scotch & Soda'와 같은 기업들이 러시아시장 공략을 위하여 진출하였다. 이 이외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하여 기획을 하고 있다. 기존에 러시아시장에 큰손 역할을 하고 있었던 Metro, Auchan 같은 기업들이 러시아 지방으로 진출하여, 블로그다 시에 새로운 형태의 상점을 개설했으며 조만간에 가전제품과 주방용품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거래를 개설할 예정이다.

2012년 상반기 상가건물의 분양과 임대는 안정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 대비 5~7%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여름 비수기가 시작되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줄어들어 시장가격이 경합세를 보인다. 임대시장의 침체는 적어도 여름 비수기를 지



표 4.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한 2012년 상반기 모스크바 내 상권 임대료

상권	공실율(%)	2012년 임대료(\$/㎡)	2011년 임대료(\$/㎡)
트베르스카야	1.6	2,900-8,000	2,900-8,300
트베르스카야-얌스카야	2.1	2,100-3,800	2,700-3,900
아르바트	2.0	1,500-3,400	2,100-3,500
노브이 아르바트	7.1	800-3,000	600-2,800
퍼트니츠크스카야	3.0	1,900-3,900	1,800-3,700
페트로브카	1.5	1,900-3,500	2,000-3,150
사도보에 칼초	5.7	1,000-2,100	900-2,400
쿠투조프스크	3.2	1,200-2,900	700-2,600

Источник: данные компании Blackwood

나 2012년 3분기 후반에나 다시 활성화 되는 것이 전통적인 흐름이다. 임대물건의 증가와 적정한 공실률은 해외 투자자들뿐 아니라 러시아연방 차원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한해에만 임대물건이 10~15% 상승한 상가임대물건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표4에 보면 2012년 상반기는 2011년에 비하여 상가 분양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활성화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 호텔 건축시장 상황은 스몰린스크 광장에 세워진 러시아 브랜드 Mercure (Accor Group) 호텔이 109개 객실로 개장하는 등, 2012년 상반기 모스크바 호텔시장에 253개 객실이 추가로 공급되

었다. 디나모 스타디온 재건축 프로그램의 일환 중 297개 객실 규모의 Hyatt Regency Moscow이 참여하기로 건축계약을 맺는 등, 트베르 가에 약 200개 객실규모의 호텔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하철역 코지 힌스크(М. Козихинском переулке) 부근에 약 110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하기로 모스크바시 산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긍정적 결정이 통과되었다. 지방의 경우 사마르 주에 205개 객실규모의 Ibis 호텔을 완공하는 등 2012년 상반기 동안 외국 브랜드로 건설된 호텔 500개 객실이 모스크바 지역을 제외한 러시아 지방에 공급되었다. 표5에서 보듯이 2012년 하반기지방에서 신설되는 호텔의 대부분은 별 3~4성급 호텔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5. 2012년 하반기 발표된 신축호텔 프로젝트

호텔명	도시	등급	객실수	준공일
Sheraton	로스토프-나 돈	4-5성급	307	2014
Four Points by Sheraton	칼루가	4성급	168	-
Domina Hotel	툼스크	4성급	150	-
Swissotel	카잔	5성급	-	2016
Sheraton	칼루가	4-5성급	172	-
Park Inn	노보쿠즈네츠크	3성급	150	2014

Источник: данные компании Blackwood

관광안내서를 통한 탈소비에트 도시 정체성의 이해

송준서 (한국외대 HK교수)

몇 년 전 러시아 고위인사가 한국에서 간담회를 갖고 나서 청중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한 한국 청중이 자신의 극동지방 방문 시 경험했던 러시아 지방 관리들의 무관심과 불친절함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 고위인사는 러시아 지방 관리들이 아직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외국인이나 외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뎌지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고 답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소비에트 시기에 지방 관리들은 관광에 대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만일 어떤 지방 도시가 군사시설, 방위산업 시설이 위치해있는 곳이라면 공식적으로 ‘닫힌 도시’가 되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이 제한되어 관광자원 개발에 제약이 따랐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시절 ‘관광’이라 함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처럼 수익 사업의 일환 또는 순수히 레저를 목적으로 한 산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이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련 각 지역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경우가 많았

그림 1. 해군 도시 세바스토폴. 2012년 7월 29일 세바스토폴에서 거행된 ‘해군의 날’ 행사에 참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흑해 함대.
(출처: <http://ukrainetrek.com/blog/army>, 검색일 2012. 11. 14)





그림 2. 관광지 세바스토폴. 5-10세기 경에 세워진 고대 유적이 아직도 보존되어있다. (출처: <http://images.yandex.ru>, 검색일 2012. 11.14)

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머리를 짜내어 도시의 특성을 규정하고 관광상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천년고도 프스코프에 대한 소비에트 시기 관광안내서는 900년대 초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도시의 유구한 역사보다는 러시아 혁명의 주역 블라디미르 레닌이 1900년대 초 머물렀던 장소라는 것이 강조되어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에 대한 소련시절 관광안내서는 이 도시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은 ‘영웅도시,’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바친 애국도시로 천편일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 지방 정부들은 소련 시기와는 달리 정치색이 많이 배제된 지방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보다 더 강조한 관광안내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지방 도시들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경험하면서 관광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이제 지방 도시들은 관광

산업을 도시 수익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관광상품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최근 러시아 지방 도시들이 새로운 지방의 상징을 내세우거나, 지방 전통의 재발견 또는 재정의를 통해서 지방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 도시에서 만들어 내는 관광안내책자를 분석해보는 것은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러시아 지방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즉, 특정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방 출신의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와 연관된 장소 또는 행사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해당 도시에 대한 관광안내서이기 때문이다. 관광안내서 분석 방법 중의 하나로 지방 정부에서 출판한 관광안내서의 내러티브, 즉 설명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내러티브가 특정 장소에 내재되어있는 ‘장소성’과 그 장소에 얽힌 ‘기억’을 구현하는 ‘스토리텔링’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지와 스토리텔링

“관광지 스토리텔링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관광연구』, 2011.04)이라는 논문에서 윤현호, 이훈, 송영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공간이나 관광지와 같은 장소에는 개인과 집단의 행위, 경험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축적되며,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장소는 문화성,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한다. 비록 장소적 특성과 의미를 내포하



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삶과 동떨어진 시대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어떤 장소가 가진 특별한 기억을 방문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장소적 특성이 두드러질 수 있고, 이 경우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바로 그 관광지, 즉 장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특정 장소에 스토리가 주어지고 그 스토리를 통해 의미를 획득한 장소가 방문객에게 스토리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과 장소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방문객이 특정 장소의 장소성 그리고 거기에 내재되어있는 기억을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된다. 즉 스토리텔링을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할 때 그것은 장소가 가진 특성을 방문객에게 전달하고 방문객과 장소에 내재된 기억, 특히 독일 문화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이 “의미를 전승해주는 기억이자 집단 정체성을 형성시켜주는 사회적 기억”이라고 정의했던 ‘문화적 기억’을 공유하도록 만든다.

문화적 기억과 관광지 스토리텔링과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윤현호 등은 위에서 언급한 논문에서 이러한 문화적 기억을 공유한 한국의 관광지로 전북 남원을 예로 든다.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남원에 춘향설화에 관련된 내재적 장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춘향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관광객들은 ‘소나

기’의 작가 황순원의 생가가 위치한 양평의 ‘소나기마을’을 방문해서 소설의 감동과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문화적 기억을 공유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문화적 기억을 테마로 삼아 장소성을 공유하는 것의 예로 지역 축제를 들 수 있다. 강화도 단군제,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제 등에 관광객들이 동참함으로써 축제의 장소성에 깃들여져있는 문화적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관광지가 다 특정 장소에 내재된 역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춘천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 장소라는 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문화적 기억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내어 방문자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로 장소를 재해석하게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하였건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를 배경으로 하였건 간에 모두 문화적 기억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라 하겠다.

탈소비에트 스토리텔링과 도시 정체성 만들기

그렇다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도시 정체성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한 도시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그것은 도시 정체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사학자 칼 퀘일스(Karl Qualls)는 2009년 펴낸 『젯더미에서 재건으로』(From Ruins to Reconstruction)라는 책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퀘일스는 크림반도에 위치한 항구도시 세바스토폴(Севастополь)의 도시



그림 3. 크림전쟁의 기억. 1905년 크림전쟁 5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세바스토폴 방어 파노라마' 박물관. (출처: <http://xboxworld.livejournal.com>, 검색일 2012. 11.14)

정체성 변화를 이 도시에 대한 관광안내서의 스토리텔링 분석을 통해 추적하였다. 18세기 말 예카테리나 여제 시기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이후 크림전쟁(1854-55)을 겪고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 영토로 남아 있다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게 된 이 도시는 크림전쟁을 계기로 남부 러시아의 주요 군항 및 해군기지로 부상하였다. 이후 1941년 말부터 시작된 나치 독일군의 공습에 8개월 동안 맞서 싸우다가 1942년 7월 함락되어 약 2년 동안 나치 지배하에 있었고, 1944년 5월 소련군에게 재탈환되면서 해방된 곳이다. 켈스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하게 조국을 방어한 해군기지로써 명성을 지닌 세바스토폴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서 출판된 세바스토폴에 대한 관광가이드북과 소련 해체 이후 세바스토폴에서 출판된 관광안내서의 내용, 구성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 도시의 정체성 규정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규명하였다.

켈스는 소비에트 시기와 탈소비에트 시기 세바스토폴에 대한 관광안내책자를 분석한 결과 두 시기의 안내책자는 모두 세바스토폴에 내재되어 있

는 전쟁의 기억을 토대로 해군 도시의 전통을 강조하고 전쟁 기간 동안 발현된 도시민의 영웅주의를 세바스토폴의 주요한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소련을 통치한 브레즈네프 시기 동안 출판된 세바스토폴 관광안내서에는 크림전쟁에 대한 설명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세바스토폴의 전쟁 영웅 소개와 성인전(hagiography)의 성격을 띤 그들의 무용담에 밀려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켈스는 오늘날 세바스토폴에서 볼 수 있는 관광유적지의 2/3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모두 브레즈네프 시기인 1960, 70년대에 건립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브레즈네프 지도부가 제2차 대전의 신화와 기억을 '소비에트 애국주의'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로 이러한 정책이 지방 도시의 관광안내책자는 물론 그곳의 기념물 건립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탈소비에트 시기 이 도시 관광안내서의 스토리텔링은 바뀌게 된다. 소련 해체 이후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은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었고 소비에트 시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우크라이나의 시각에 영향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내용을 이전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대전 동안의 세바스토폴의 경험보다 때로는 크림전쟁과 관련된 스토리를 더 주요한 사건으로 취급하는 관광안내서가 등장하고 있다. 켈스는 또한 제2차 대전의 경험에 대해서도 소비에트 시기 출판된 관광안내서가 전쟁 영웅 개인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반면, 최근 출판되는 안내서는 개인의 영웅담은 삭제되고 집단의 영웅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저자들이 저술한 세바스토폴 관광가이드북의 또 다른 특징은 세바스토폴이 1905년 혁명 당시 흑해함대 병사들이 전제정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고 러시아 내전(1918-21) 동안에도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赤軍)과 반혁명 세력인 백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혁명의 기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소비에트 시기 강제적인 농업집단화와 같은 정책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우크라이나인들의 반소비에트 감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최근 출판된 세바스토폴의 관광안내서와 소비에트 시기 안내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또 다른 차이점은 최근 나온 안내서는 세바스토폴의 군사적 특징보다는 휴양지, 레저도시로 묘사하는 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세바스토폴 시정부의 관광객유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소련 시기 대표적 군항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닫힌 도시’로 남아 있었고 아직까지도 러시아 흑해함대가 도시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세바스토폴은 1996년이 되어서야 관광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최근 세바스토폴 시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입 증대를 위해 관광안내서에 세바스토폴의 교통, 레저, 숙박에 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수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관광안내서에는 “세바스토폴은 군함의 도시, 박물관



그림 4. 휴양지 세바스토폴. 아름다운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 중인 유람선. (출처: <http://gigamir.net>, 검색일 2012. 11.14)

의 도시만은 아니다. 이 도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친절한 도시이다”라는 류의 문구가 자주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글로벌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탈소비에트 시기 세바스토폴의 시정부가 도시의 특성을 군사적 영예와 역사적 전통을 지닌 ‘레저와 휴양의 도시’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 *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관광안내서를 지역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안내서에는 그 지역 도시의 기억, 장소성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탈소비에트 공간에 있는 도시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경우 여러 가지 접근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관광안내서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분석은 우리에게 과연 특정 지역의 시정부가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어떻게, 어떤 이유로 도시의 기억과 정체성을 재구성, 재정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현황

이 리 나 코 르 군 (한국외대 HK연구교수)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경제는 유가 상승에 따른 호황을 누렸다. 그 결과 1990년대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과 자본 부족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석유가스 수출로 축적된 자본을 국가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즉,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국가 경제 현대화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제조업 발전과 이노베이션 창출 등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들도 정부의 승인과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해외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호에 ‘러시아 기업 IPO 현황’에서 밝혔듯이, 러시아 국내 상황이 안정되자 러시아 기업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원리를 습득하고 자본을 축적한 뒤 해외 시장에서 기업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일정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러시아는 자본유입 국가가 됨과 동시에 활발히 해외투자를 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 UNCTAD가 2011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는 365억 불을 투자 유치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 벨기에, 홍콩, 브라질, 싱가포르, 영국, 영국 버지니아 군도에 이어 세계 9위에 올라섰고,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는 673억 불을 해외에 투자해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홍콩, 벨기에, 스위스에 이어 세계 8위를 차지했다.

결국 해외직접투자는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고,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러시아의 최근 해외투자 현황과 해외투자의 국가별, 산업별 구조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해외투자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투자가 러시아경제에 있



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도 언급하려 한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경향

1990년대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그 규모는 1년에 15억 불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3년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시작한 후 급속히 그리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3년에 97억 불에 머물렀던 해외투자 규모가 8년이 지난 2011년에 673억 불이 되었다. 1년 평균 50%씩 증가한 것이다(그림 1). 다른 BRICs 국가와 비교해보면, 2011년 러시아와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브라질, 인도의 해외투자 규모를 상회했다. 2011년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GDP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미국(GDP 대비 2.8%), 중국(GDP 대비 1.7%), 독일(GDP 대비 1.5%)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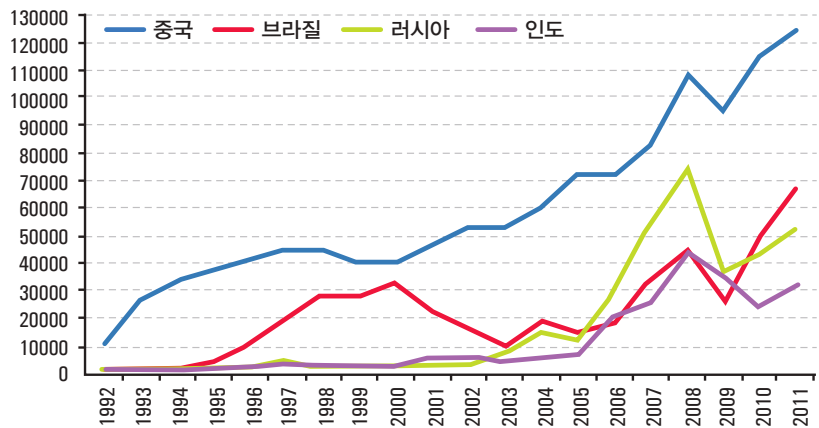
직접투자를 분석할 때, 투자규모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누적 투자액이다. 작년 2011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는 누적투자액 3,621억 불을 기록해서 중국에 이어 세계 16위를 차지했다. 1992년 누적투자액이 0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간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다.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그 이유로 2008년까지 이어진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러시아 경제 팽창을 들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누렸던 호황도 그 이유가 되었다. 즉, 2000년에 UNCTAD가 발행한 '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당시 세계 직접투자는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2000년에 1.2조 불에 달했던 전 세계 직접투자 규모가 2001년 9월 11일 테러와 과도한 생산 및 투자로 발생한 IT버블 때문에 급감했다가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2.2조 불에 달했다.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로 신흥 국가들의 부상, 선진국의 금융 분야 발전, 생산 공정 분할로 공정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 그리고 자원 확보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유발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러시아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8년 556억 불에서 2009년 437억 불로 119억 불이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라 다시 525억 불까지 늘어났으며 작년 2011년에는 673억

그림 1. 1992-2011년 BRICs국가 해외투자 경향

(단위: 100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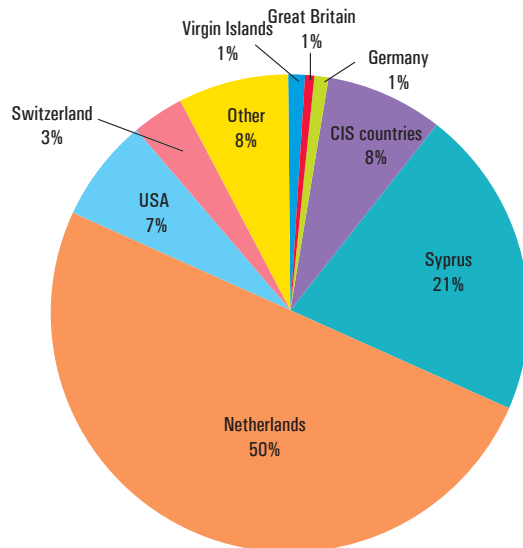
불로 증가했다. 여기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특징은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10개 국가 대부분이 2008년에 해외투자 감소를 기록하고 2009년에도 계속 약세를 보여 준 반면, 러시아는 2008년에만 감소세를 보이고 2009년부터 바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뒤늦게 받았으며 수년간 축적한 외화보유액과 국가안정기금 덕분에 심각한 상황에 비교적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 러시아 해외투자 경향은 위기 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학 교수 보리스 헤이페츠가 지적했듯이, 위기 후에는 러시아 국영기업의 역할이 커졌고 개인 투자가 늘어났으며, 직접적인 금융거래보다 선물거래나 자금거래와 선물거래가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의 거래가 늘어났다. 그 외의 다른 점에서는 금융위기 이전 시기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러시아 해외투자의 국가별, 산업별 구조

이제 러시아가 해외의 어느 국가, 어느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지 살펴보면, 러시아의 해외 직접 투자의 지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대러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해외 직접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네덜란드, 사이프러스, CIS 국가, 미국, 버지니아 군도, 영국, 독일 등이다. 2007-2010년 러시아의 총 해외 직접투자에서 이 국가들에 투자된 비중이 80%가 넘는다(그림 2). 이 국

그림 2. 러시아 해외투자 대상국별 비율(2007-2011년 평균치, 단위: %)



(출처: 러시아은행)

가들의 투자 매력은 무엇보다도 수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해외지역이라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대러 투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유사 해외투자라고 본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해외투자이지만, 자금 대부분이 법적으로 해외 기업에 속해있는 러시아 기업 해외지사들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 기업들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산업적 이해관계가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시에 러시아 기업들은 아메리카 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벌였다. 당시 총 해외투자 규모의 13%, 금액으로는 70억 불 이상의 자금을 투자했다.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미미한 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러시아 해외 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 분석에서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도 경공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보다는 러시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 즉 석유가스, 화학제품, 철강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통 장비, 가스, 수도, 전력 공급 분야에도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다른 신흥국가와 마찬가지로 도소매업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금융업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의 특징은 원료공급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석유가스 산업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가 국가발전 모델을 에너지산업 위주로 구축하면서 러시아기업들도 다른 나라의 에너지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해외 에너지 분야 투자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지리적 다각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해외투자 경험 부족, 언어 장벽과 심리적 장벽 등의 이유로 인해 금융, 통신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는 구소련 국가인 동유럽, CIS 국가에 편중되고 있다. 몇몇 CIS 국가들에서는 부채를 상계하는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즉, 러시아가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CIS 소속 국가에 남겨진 부채 또는 독립 이후 형성된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신 러시아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특정 산업분야에 진출하는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기업이 진출하는 분야는 주로 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이다. 한편, 석유가스 분야와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수준까지 성장한 러시아 대기업

표 1. 러시아 해외투자의 산업별 구조(단위: 천불, %)

	2008		2009		2010		2011	
	천불	%	천불	%	천불	%	천불	%
석유가스 채굴	8,107	0.4%	161	0.0%	314	0.0%	15,000	0.8%
제조업	988,567	45.3%	421,666	24.2%	121,787	11.9%	297,401	15.6%
제철	979,615	44.9%	1,026,730.2	5.9%	64,939	6.3%	210,538	11.1%
수송장비	2,350	0.1%	4,023	0.2%	1,583	0.2%	3,847	0.2%
교통통신	30,241	1.4%	4,968	0.3%	107,133	10.4%	515,222	27.1%
금융	100,040	4.6%	46,146	2.6%	978	0.1%	28,308	1.5%
부동산		0.0%	37,391	2.1%	14,110	1.4%	177,717	9.3%
도소매업	824,603	37.8%	1,218,883	69.8%	733,292	71.4%	820,726	43.1%
석유가스 도매업	273,630	12.5%	-	-	-	-	403,070	21.2%
기타	230,276	10.6%	162,339	0.9%	49,458	4.8%	49,639	2.6%
합계	2,181,834	100%	1,745,448	100%	1,027,071	100%	1,904,013	100%

(출처: 러시아 통계청)



들이 투자하는 반면, 금융과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 내에서는 크지만 세계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업들이 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인 투자 비중이 크다. 러시아 내 부동산가격이 높고 러시아인들의 '다차' 문화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 속하는 러시아 국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동유럽 지역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스페인, 사이프러스, 그리스의 휴가지에 고가의 빌라를 구입하고 있다. 2008-2009년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러시아인들은 매년 100-120억 불에 가까운 액수를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등 여러 유럽국가 부동산 구매에 투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유럽국가 대부분에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 직접투자 배경

러시아의 해외 직접투자 원인은 러시아 현실의 일반성과 특수성이 결합되어 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러시아 해외투자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 해외투자의 특징은 대부분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국영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 해외투자에서 국영기업이 담당하는 비중이 러시아보다 더 크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자국의 입지 강화를 위해 단일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

는 그와 같은 국가 단일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주로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러시아 기업들은 신흥시장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해외에 투자한다. 따라서 주요 해외투자 기업은 가스프롬이나 유코일 등 원자재 분야의 주요 수출기업들이다.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 기업을 강화한 뒤에 국제화의 수순을 밟겠다는 논리는 그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몇몇 기업들은 보유자산의 포트폴리오(asset-seeking investment)를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 투자가 선진국 시장에서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투자 유형이다. 그런 유형의 투자는 제철분야 등 산업 일부 분야의 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러시아의 WTO 가입에 제강업계의 로비가 한몫을 담당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철강제품의 수입 관세가 대폭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대화 계획과 신기술 도입 노력도 새로운 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를 촉진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는 주로 주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투자는 가스프롬의 투자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가스프롬은 에너지수송 간선망과 가스매장지에 투자하고 있다. 인접한 CIS 국가에 대한 투자도 경제적인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CIS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소비에트 시절부터 확립된 관계와 언어 및 심리적 장벽이 낮다는 점에 기반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CIS 국가에 대한 투자 중 많은 부분이 기업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들의 해외투자 모티브가 때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금융조달 조건과 기업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기도 하다. 해외 지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관계자들에게는 기업의 투명성이 높고 금융지원의 리스크가 낮다는 시그널로 작용하여 보다 낮은 이율로 신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해외 지사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다 용이하게 해외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선진 경험과 기업윤리를 수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들에서 이루어진다. 대규모 자산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해외로 이전시킨다. 많은 경우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개인투자는 1990년대 과도기에 부를 축적한 뒤 유럽 국가로 이주한 기업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러시아 산업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신기

술 및 경영기법 도입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와 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기업의 현대화와 기업의 투자는 연관성은 극히 약하다. 투자에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한다. 한편, 투자 전략 재검토와 투자 원칙 단일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최근의 금융위기로 신기술 분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러시아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러시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향후 수년 동안 투자의 품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투자의 전반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품질 개선에는 러시아 기업들의 발전과 전통적인 투자분야에서의 투자 대상 감소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현물시장이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러시아의 해외투자 규모도 증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성(聖)과 속(俗)의 공간: 러시아의 가정

황 성 우 (한국외대 HK교수)

일 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의 가정은 기독교가 수용되기 전에 민간신앙에 따라 의식과 축제가 진행됐던 성스러운 장소였다. 중매(сватовство)와 혼담이 오가며 결혼식이 진행됐고, 망자(亡者)에 대한 장례식도 거행됐다. 물론 개인의 통과 의례와 같은 의식들은 집안에서만 실시된 것은 아니었고, 마을이나 지역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넓은 광장에서 거행됐다. 새해 초에 행하는 점치는 행위(гадание)와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의식이 집안에서 시작됐을 뿐 아니라, 신년 초 마을을 돌며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콜라드카(колядка)를 부르거나 가장무도회에 참석하고, 마슬레니차 기간에 거행되는 성대한 불린 축제에 참석하며, 게오르기의 날에 시작되는 첫 번째 放牧祭와 같은 많은 의식들이 모두 각각의 가정에서 시작됐다. 그런 까닭에 집안의 家長(Большак)은 神官의 역할을 맡아 모든 의식을 주관했다. 엄격한 금욕생활을 강조하며 중세시기의 노브고로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스트리골니키(стригольники)들이 ‘우리 집이 곧 우리의 사원이다’(Дом мой-Храм мой)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보아도 성스러운 의미로 집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¹⁾. 각각의 집(изба)에서 가정단위의 의식이 끝나면, 두 번째 단계



그림 1. 신년 점보기 (출처: www.yandex.ru)

1) 소련의 민속학자들은 중세 러시아인의 주거지 연구를 통해 민간신앙의 의식들과 그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는데, 슬라브인들이 집과 의복을 주술적인 무늬로 채울 정도로 정령숭배는 슬라브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물과 의복에 우리의 부적과 같은 것을 장식할 때 일관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즉 온갖 부정한 악귀가 인간에게 침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즉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이나 유리창에 주술적 의미가 담긴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에서는 마을 전체의 공동체 모임(Мирский Сход)에서 의식이 거행됐다. 그래서 집은 모든 의식들이 시작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마무리되는 장소였다.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러시아어의 ‘домашний очаг’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의식은 가정으로부터, 특히 집안의 난롯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어느 한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살고 있던 집의 난로에서 불씨를 화로에 담아 새 집에서 바로 사용

할 수 있게 했다. 간혹 이주할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난로에서 사용하던 삽과 불 지피는 도구만 가지고 갔다고 한다. 우리네 정서와 유사하게 불에 대한 러시아인의 숭배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성스러운 장소로서 집의 이미지는 기독교가 수용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단지 聖所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민간신앙의 사원이었던 집이 기독교의 교회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신앙의 사원들이 세워졌던 자리에 교회가 새로이 세워지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러시아인들에게 집은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은 곳이었다. 농민들의 집은 흔히 농민들의 생활 중심지이자 전례의식을 위한 성스러운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집에는 보통 성상화가 걸려 있고, 탄생과 결혼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의식들이 거행되는 의례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림 2. 집안의 성소 (출처: www.ru.wikipedia.org)

러시아 농촌가옥의 구조에서 공간배치는 전통적으로 엄격했다. 러시아의 주택구조는 벽난로가 놓여 있는 주방, 이콘이 걸려 있으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침실이라는 세 가지 공간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聖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바로 이콘이 놓여져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흔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곳(Красный Угол), 신성한 곳(Святой Угол)이라 불리는 聖所인데²⁾,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벽난로와 대각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집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현관 앞에서 성소를 보고 모자를 벗은 다음, 세 번 성호를 긋고 이콘에 절을 했다. 그런 후에야 주인과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고대 러시아의 집안에서 성상과 제단을 갖춘 ‘성스러운 장소’는 각각의 가정에 위치한 종교적 정신

2) 구석을 의미하는 단어 Угол은 방(комната)의 개념이다



적인 생활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실은 16세기 실베스테르(Сильвестр)의 『도모스트로이』(Домострой) 제8장에도 잘 언급돼 있다.

“어떻게 자신의 집을 성상으로 장식하고 집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집에, 모든 건축물에 온갖 장식과 램프를 갖춘 화려한 장소를 만든 다음 성상이 그려진 성스럽고 정결한 형상을 벽에 모셔야 할 것이다. 하느님을 찬미할 때는 성상앞에 초를 밝힐 것이며 찬송을 마치면 초를 꺼야 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또한 먼지를 막기 위해, 단정하고 소중하게 하기 위해 막으로 덮어야 하며 항상 깨끗한 날개로 쓸어내고 부드러운 입술로 닦을 것이며, 언제나 사원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이고 기품있게 순결한 양심으로 성상을 다룰 것이고, 하느님을 찬미할 때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를 올릴 때에는 촛불을 밝히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기도를 올릴 때나 자지 않고 있을 때, 절을 할 때나 하느님께 찬송을 드릴 때 항상 성상을 경배하라. 눈물으로써 통곡으로써 비탄에 빠진 마음의 죄를 용서를 빌며 참회하라.

이렇게 볼 때, 집이 가지고 있는 성소로서의 기능은 기독교 수용이전과 기독교가 수용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민간신앙의 성소가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독교의 성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집이 가지는 성스러운 의미와 다르게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 예로 목욕탕(Баня)을 들 수 있다. 목욕탕과 헛간, 마굿간³⁾과 같은 장소가 기독교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보면, 기독교와 민간신앙의 융합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우스펜스키는 기독교 수용 이후에도 목욕탕이 부정한 장소로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독교 수용이전에 東슬라브인의 생활에서 목욕탕이 가졌던 성스러운 의미에



그림 3. 도모보이 (출처: www.yandex.ru)

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⁴⁾. 즉 기독교가 수용되기 전에 목욕탕은 가족의 사원으로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수용된 이후에도 그 기능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이다. 달라진 점은 집의 이미지와 같이 성소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악마의 힘이 존재하는 부정한 장소로서, 이곳에는 십자가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목욕탕인 바냐를 사악한 정령과 마녀들, 그리고 死者들이 모이는 장소로 인식해 이 바냐에는 이콘을 걸지 않았고, 목욕하기 전에 십자가를 풀어 놓았다. 목욕을 위해 옷을 벗고 십자가도 풀어 놓기 때문에 목욕탕에서는 인간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욕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인들은 이곳의 정령인 반니크(Ванник)와 그의 아내 반나야(Ванная)를 위해 물을 남겨 놓았다.

이렇게 집과 목욕탕이 가지고 있던 신성한 장소와 불결한 장소의 이미지는 집의 정령인 도모보이(Домовой)와 다른 정령들과의 관계에서도 찾아

3) 러시아 농가의 마굿간에는 말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려진 플로리와 라브르를 의미하는 성상화가 걸려있거나, 혹은 ‘말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구멍뚫린 돌들이 벽에 걸려 있기도 했다.

4) 러시아인들은 바냐에서 병을 쫓아내고, 이 바냐가 바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림 4. 도모보이 (출처: www.yandex.ru)

볼 수 있다. 도모보이는 기독교 수용이전에 러시아인들이 믿고 있었던 조상숭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어서 도모보이가 과거의 家長을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도모보이는 주로 집안의 벽난로 근처와 문지방 아래, 또는 다락방에 거주했고, 간혹 가축우리나 마굿간에 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활동범위는 주로 집안으로 국한됐으며, 집 마당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⁵⁾. 집안에서 도모보이의 역할은 대략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앞일을 예측하는 역할을 포함해 집구성원과 관련된 역할, 둘째, 가축과 관련된 역할, 셋째, 새 집으로 이동할 때 도모보이와의 관계, 네 번째, 도모보이와 다른 정령들과의 관계이다. 농민들이 농사일을 게을리 하거나 농사일 자체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도모보이가 벽을 긁어 소리를 내 농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거나, 새로운 가축을 집안으로 들여올 때, 농민들이 먼저 도모보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모두 도

모보이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할 때, 집 주인은 이콘과 빵, 소금을 들고 도모보이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일종의 가택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모보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구성원들에게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집안일을 도와주는 친절한 존재로서 가족들이 게으르거나 태만할 경우에만 벌을 주고, 교회의 물건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도모보이의 이미지는 집이 가지고 있는 聖所的 역할을 더욱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의 정령인 도모보이가 가지고 있던 우호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마당의 정령인 드보로보이와 헛간의 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오빈니크는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였다.

드보로보이는 오빈니크처럼 아주 악의적인 존재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밤에 자는 사람을 찾아와 그를 속이거나, 갓 태어난 가축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전해진다. 오빈니크는 집 주위에 거주하는 정령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로 등장하는데, 농민들이 특정한 날에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여, 이를 어길 경우 오빈니크는 헛간을 불태우거나 심지어 집 주인까지 불에 태워버렸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볼 때, 집안에 거주하는 도모보이의 선한 이미지와 집밖의 드보로보이, 오빈니크, 반니크의 악한 이미지는 ‘신과 악마’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발전돼 교회에 의해 수용됐고, 그 결과 성스러운 장소로서 집과 교회는 집밖과 교회밖의 장소와 대비됐다고 볼 수 있다.

5) 19C 말엽에 도모보이에 악마의 요소가 가미되어 탐보프(Тамбов) 지역의 사람들은 도모보이가 특정한 시점에 신의 저주를 받아 땅에 묻힐 수 없었던 조상이라고 믿었다. 불결하게 죽은 사람과 도모보이가 연결됨으로써 도모보이가 가지고 있던 선한 이미지는 실추됐지만, 일반적으로 도모보이는 인간들에게 우호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다.

신정부 초기 인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¹⁾

장 세 호 (한국외대 HK연구교수)



그림 1. 10월 17일 지역개발부 장관에서 해임된 올렉 고보룬 (출처: nakanune.ru)

최근 러시아 신정부의 인적자원 활용에서 혼란상을 드러내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2000년 푸틴 등장 이후 정착된 ‘수직적 권력구조’의 엄격한 위계하에서 대중적 영역으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던 권력엘리트 내부의 알력과 불화 장면들이 근자에 들어 여과 없이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 최고 권력자에 대한 구심력이 가장 강한 신정부 출범 초기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공명(共鳴)하는 상황은 분명 이례적이며 특수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17일 푸틴의 견책 처분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한 고보룬(Олег Говорун) 지역개발부 장관이 해임된 데 이어, 11월 6일 지난 5년간 국방부를 이끌어

온 세르듀코프(Анатолий Сердюков)가 전격 경질됐다. 신정부 출범과 조각 완료가 발표된 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유력 장관들의 교체 사태는 분명 예사롭지 않은 위험신호라 할 수 있다. 물론, 고

1) 본 글은 온라인 칼럼 ZOOM IN Russia's Power Elite, No. 4(2012.11.9)를 수정 보완한 것임.

보론과 세르듀코프의 경질이 질적으로 다른 사례라는 점은 분명하다. 고보론의 경우, 다분히 즉흥적·우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세르듀코프의 경우는 러시아 권력엘리트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고보론의 경질 과정은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했다. 고보론은 푸틴이 취임 직후 공포한 대통령령에 명시된 주요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견책 처분을 당한 세 명의 장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내각 부총리급에서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하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부당함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급기야 크레믈린이 만류하고 나섰음에도 고보론이 뜻을 꺾지 않자 푸틴은 10월 중순 그를 공식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세르듀코프 경질 사태는 더 복잡한 역학관계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의 공식 해임 사유는 대규모 국방비리 사건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세르듀코프가 2011년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했던 국방부 산하 기업 ‘오보론세르비스’(Оборонсервис)의 부정 거래 추문들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이번 부정·비리 사건으로 국고 손실액이 약 30억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세르듀코프가 국방부 내 대규모 부정부패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얘기가.

그러나 러시아 내 주요 매체와 정치 분석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최근 국방장관 경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 권력엘리트 내부에서 일어난



그림 2. 2012년 러시아 국방아카데미 대학 졸업생을 위해 열린 크레믈린 축하연회에서 만난 푸틴과 세르듀코프의 모습 (출처: www.vedomosti.ru)

세르듀코프의 급격한 입지 약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는 세르듀코프에 대한 러시아 최고 지도부의 ‘신뢰 상실’과 ‘후원·수혜 관계 회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푸틴은 지난 2007년 2월 기업가이자 경제전문가였던 세르듀코프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당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이바노프(Сергей Иванов)가 제1부총리로 승격되면서 공식이 된 국방부 수장직에 그를 전격 임명한 것이다. 세르듀코프의 국방장관 임명은 푸틴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국방개혁과 군수산업 체질개선을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푸틴의 지원, 주브코프(Виктор Зубков)



그림 3. 비상사태부 장관 시절 쇼이구의 모습
(출처: www.vedomosti.ru)

총리와의 사위-장인 관계, 그리고 대통령 집권기 메드베데프의 적극적 후원 등은 세르듀코프에게 안정적 권력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재임 중 추진한 일련의 급진적 개혁정책으로 말미암아 군부와 군산복합체로부터 격렬한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더욱이, 군수 산업 분야의 주요 인물들인 세친(Игорь Сечин), 체메조프(Сергей Чемезов) 등과의 잦은 갈등과 마찬가지로 푸틴 사단은 그를 점차 골칫거리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세르듀코프는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메드베데프와 직접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 6월 군사도사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놓고 메드베데프에 맞서 항명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8월 현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TV방송국 OTB 설립을 위한 국방부의 지원

요청을 냉혹하게 거절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결국, 대규모 국방비리 사건은 외형상 명분일 뿐, 기델 언덕을 잃은 세르듀코프의 장래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이변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아닌 쇼이구(Сергей Шойгу) 모스크바 주지사의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이었다. 이번 국방장관 인사는 러시아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예상 밖의 사건이었다. 심지어 쇼이구 자신도 사태 전개의 방향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국방장관 임명 수일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관 취임을 ‘비현실적’ 가설로 단언했을 정도로, 이번 인사는 파격 그 자체였다. 필자가 한 칼럼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듯이, 쇼이구는 지난 20년간 비상사태부를 이끌어오다 메드베데프-푸틴 권력 이양 과정에서 올해 4월 모스크바 주지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쇼이구는 이번 세르듀코프 경질 사태로 말미암아 새 직책을 수행한 지 단 6개월 만에 또다시 국방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인사 이동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일까?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번 신임 국방장관 인사는 일차적으로 국방부 장관직의 정치적 의미와 쇼이구의 개인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판단된다. 러시아 국방아카데미 총장 가레예프(Махмуд Гареев)의 말처럼, 국방부 장관직이 군 통수권자의 전략적 결정을 직접 실행하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최측근 인사의 발탁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다. 또한, 쇼이구

가 고위 장성(대장) 출신 인물이며, 비상사태부 설립 당시부터 군부와 밀접한 연계를 맺어 왔다는 점 역시 장관 임명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군부는 쇼이구의 국방장관 취임을 적극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이번 신임 국방장관 인사가 상당한 수준의 부작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모스크바 주 주민들의 충격과 반발이 예상된다. 쇼이구는 '러시아 제1구조대원'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주지사 취임 이후 비교적 신속하고 무난하게 전임 주지사 그로모프(Борис Громов) 재임 시 발생한 여러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주지사 사임과 직무대행체제의 운영은 모스크바 주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쇼이구의 사임으로 모스크바 주는 새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년 9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연방 차원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지역 주지사 선거가 현 통치세력과 야권 간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실제로 공산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이 일제히 내년 모스크바 주지사 선거에 전력을 다할 뜻을 밝혔고, 벌써 재야 내에서도 단일 후보 추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통치세력의 입장에서 내년 가을 치러질 모스크바 주지사 선거가 녹록지 않은 한 판 싸움이 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간추려 볼 수 있겠다. 첫째, 고보론의 해임 과정은 권력엘리트 관리 메커



그림 4. 쇼이구의 국방장관 전격 기용을 풍자하는 만평
(출처: www.polit.ru)

니즘에 일정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푸틴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각료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치 공학연구소 스타노바야(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는 정부 각료들 역시 이를 하나의 의식적 관례로 간주해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인사에게는 이러한 비판이 명예로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고보론 해임 사태는 러시아 권력엘리트 내부의 불문을 또는 행동규범의 효력 상실 징후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둘째, 고보론 해임 과정은 현 통치세력의 인사 정책에서 장기전략, 계획의 부재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크레믈린이 6년 집권 기간의 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할 인적 자원의 활용 계획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직속 5개 부처의 하나이자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방장관이 정권 출범 5개월 만에 경질되는 사태는 여러모로 심상치 않은 부정적 징후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푸틴은 러시아 권력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에서 그동안 향유해왔던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압도적 권위 유지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신임 국방장관 임명 과정은 현 통치세력의 취약한 인적자원 토대를 대변하고 있다. 푸틴은 이번 국방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가장 믿을 만한 카드를 꺼내 뚫으로써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쇼이구의 신임 국방장관 임명은 이로부터 파생되는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쇼

이구의 연방정부 재입성은 메드베데프 내각의 인적 쇄신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정은 일부 인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현 통치세력의 인적 토대의 협소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신정부는 작년 12월 총선 이후 조성된 정국 혼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연착륙에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부정적 징후들은 푸틴 3기 정부가 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인지도 모른다. 물론 작은 몇 가지 사건을 체제의 구조적 위기로 치환하는 침소봉대의 오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모든 큰 파열은 언제나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면역학적 타자의 초상

이주노동자는 인간인가 도구인가?

라 승 도 (한국외대 HK교수)

2012년 10월 18일 <레바다-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러시아 국민 47%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는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고 대하는 부정적 시선과 배타적 태도가 날로 악화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레바다-센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정부 <톨레랑스>(관용) 프로그램 웹사이트에는 페테르부르크에 온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 노동자들을 위한 만화책 『이주노동자 안내서』(Справочник трудового мигранта, 이하 『안내서』)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 책자가 공개되자마



그림 1. 만화책 『이주노동자 안내서』 표지와 본문 일부 (출처: spbtolerance.ru)



그림 2.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초상 (출처: www.kommersant.ru/ogoniok)

자 러시아 시민사회에서는 큰 논란이 빚어졌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집을 짓거나 수리하고, 청소할 때 쓰는 빗자루, 주걱, 롤러, 솔 등의 가재도구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주노동자들이 페테르부르크에 적응하도록 법률적, 의학적, 문화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경찰이나 의사 등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였다. 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자마자 <인권을 위하여>와 같은 시민운동단체로부터 비판의 못매를 맞은 것도 이런 대목 때문이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는 듄직한 인상의 경찰관이 국경 통과, 체류 기간, 노동 허가 등 러시아연방 내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

한 사항들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인자한 모습의 의사가 에이즈 등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질병 예방에 관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제3부 “유용한 조연들”에서는 박물관 학예사로 보이는 어여쁜 아가씨가 이주노동자들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들려준다. 이 밖에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려서도 안 되고, 민족 전통의상을 항상 차려입고 다니거나 명품 구두에는 운동복을 걸치고 다녀서도 안 된다고 당부한다.

이처럼 『안내서』는 ‘톨레랑스’ 정신과 노력을 구현하는 친절함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책자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문화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시 당국은 이주노동자들이 책자 내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모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건설 도구로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자신들의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재미있어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시 당국은 이주노동자의 본질적 인간성 대신에 도구적 기능성만 부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 외국인 혐



오증(Xenophobia)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인권운동가들의 우려 섞인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내서』 내용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책자의 이면에 담긴 내포적 의미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사회가 치명적 질병 등 위험 요인들의 실제적, 잠재적 담지자나 유포자로서 이주노동자라는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에 민감한 방어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직감한다. 오늘날 러시아는 제도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면역학적으로 단단히 조직화된 규율사회이다. 여기서는 이주노동자들처럼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요인들을 안고 있는 면역학적 타자들이 특수한 사회적 공간 구조나 질서 속에서 엄격한 통제와 훈육 아래 놓인다. 『안내서』 내용은 제1부 시작에서부터 제3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를 잘 뒷받침한다. 게다가 이런 규율사회에서는 면역학적 주체들의 통제와 훈육 과정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이 비일비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시대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의 힘겨운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로 러시아에 온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실제로 어떻게 통제·훈육되고 있는지를 가장 최근의 러시아 영화만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드미트리 마물리야(Дмитрий Мамулия) 감독의 영화 『또 다른 하늘』(Другое небо, 2010)이 특히 흥미롭다. 이 작품은 타지키스탄 출신의 중년남성 알리(Али)가 어린 아들과 함께 익명의 러시아 대도시에 와서 집 나간 아내의 행방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룬다. 중앙아시아인



그림 3. 『또 다른 하늘』에서 경찰에게 목덜미를 붙잡혀 끌려가는 알리의 모습

의 외모에다 행색마저 남루한 알리는 러시아 대도시 기차역에 도착한 직후 거리에 나서자마자 이질성이 두드러진 면역학적 타자로서 모욕적인 취급을 당하기 시작한다.

아내가 대도시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곧장 알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알리는 기차역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딘가로 전화한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알리는 실망한 기색으로 힘없이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이때 알리는 갑자기 나타난 러시아 경찰에 목덜미를 붙잡혀 부근에 대기 중인 경찰 버스까지 강제로 질질 끌려간다. 충격적인 사실은 경찰이 알리를 닦이나 개처럼 짐승 취급을 하며 끌고 가는 데도 그가 항의나 저항의 몸짓은커녕 꺾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법 이주자이자 면역학적 타자인 알리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러시아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강압 행위에 대고 비인간적, 반인권적 처사라고 아무리 크게 소리쳐 봐도 그런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알리는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면역학적 타자로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위생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



그림 4. 보건소 위생검사를 받는 알리의 모습이 거울의 시각 틀에 갇혀 있다.

로 이송된다. 이때 러시아 의사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 모멸적인 상태로 서 있는 알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독약 물을 분무기로 뿌려댄다. 면역학적 타자의 러시아 통과 의식 가운데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도 경찰에게 잡혀가던 이전 장면에서처럼 자아와 타자 사이에는 어떤 인간적 소통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장면에서는 거울에 비친 알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제시되는데, 이는 그간 한순간 시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더욱 의미심장한 사실은 영화 전체에 걸쳐 이런 시각 이미지가 자주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미지 설정은 결국 알리와 같은 면역학적 타자들이 통제와 훈육의 틀 안에 속박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 모른다.

이후 알리는 대도시에서 이주노동자가 되어 벽돌공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목재공장에서 원목을 가공하는 등 험한 일을 마다치 않으며 튼튼이 아내의 행방을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영화 제목으로 제시된 ‘또 다른 하늘’은 이주노동자 알리에게 삶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영화는 처음부터 죽음의 이미지가 압도

한다. 먼저, 알리가 러시아로 오기 전까지 타지키스탄 고향 마을에서 기르던 자식 같은 양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간다. 죽음의 불길한 그림자는 알리가 대도시에 왔을 때도 계속 이어진다. 한밤중에 고물차를 빌려 타고 가는 길에 알리는 거리에서 개를 치지만, 개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떠난다. 알리가 개를 치어 죽게 만든 사고는 그의 아들이 아빠가 엄마를 찾아 나간 사이에 별목장에서 홀로 남아 있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비극적 사고를 예고한다.

이처럼 알리에게 닥치는 죽음의 악순환 고리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간의 죽음조차도 글자 그대로 ‘개죽음’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는 고향에서 알리가 죽은 양들을 낭떠러지로 옮겨가 발로 차서 버리고, 대도시에서 차로 친 개를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장면에 이미 예시되어 있다. 죽은 짐승들과 비슷하게 그의 죽은 아들도 병원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시체보관소에서 많은 시체 가운데 하나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씨늘한 시체로 변한 알리 아들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러시아 대도시에서 면역학적 타자로서 이주노동자들은 경찰서와 보건소에서 당하는 것처럼 인간의 짐승 취급을 받거나 비극적 죽음을 맞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알리는 영화 마지막에 가서 결국 찾아낸 아내와 함께 타지키스탄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아내 찾기’는 ‘아들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처럼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러시아 대도시에서 면역학적 타자로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밑바닥 생활을 하는 중앙아시아 이



주노동자들은 마블리야의 『또 다른 하늘』에서 만 시각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마블리야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2010년 같은 해에 나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영화감독 유수프 라지코프(Юсуф Разыков)의 『이주노동자』(Гастарбайтер)에서도 우리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이주노동자로 면역학적 타자가 되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목격할 수 있다. 라지코프 영화에서 주인공 노인은 아내를 찾아 러시아 대도시에 와서 이주노동자가 되는 마블리야의 주인공처럼, 손자를 찾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왔다가 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화를 맞이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이주노동자 노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나치 독일군의 침공에 맞서 모스크바를 방어한 참전용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소비에트 시대의 ‘민족우호’에서는 형제였고 ‘대조국전쟁’에서는 동지였던 사람들의 긍정성이 이주노동자라는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으로 역전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화는 먼저 백발의 주인공 노인이 손자를 찾아 모스크바로 오기 전까지 그의 우즈베키스탄 고향 마을과 생활부터 제시한다. 이후 모스크바에 도착한 노인의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 풍경은 과거와는 판이해진 현대 러시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상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에트에서 포스트소비에트로 바뀐 현재 상황에서 주인공 노인과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사람들도 더 이상 과거의 위치로만, 혹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암시하는 중



그림 5. 『이주노동자』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주인공 노인의 모습

요한 시각적 기호가 된다. 실제로 소련 붕괴 이후 급변한 모스크바의 사회·경제적 질서 안에서 노인과 같은 구시대 인물들은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일자리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이 전쟁영웅에서 마약밀매에 가담하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그는 마약거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진다. 곧이어 그는 다행히도 전쟁영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처를 받아 석방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방에서 석방된 이후 노인은 어느 매춘부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소중히 지니고 있던 훈장 등 소비에트 과거의 영광을 팔아 생계비를 마련하지만, 이마저도 호텔 숙박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노인은 카페에서 노예처럼 접시닻이를 하는데, 이처럼 그가 이주노동자가 되어 다시 한 번 러시아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소비에트 노스텔지어로 표현되는 영광스러운 과거의 기억도 한낱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상과 같이 『또 다른 하늘』, 『이주노동자』 등 동시대 러시아 영화에서 생생하게 묘사되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려할 때, 페테르부르크 시 당국이 발간한 『안내



그림 6. 『내 남자친구는 천사』에서 다시 만난 여주인공에게 말을 거는 이주노동자의 모습

서』는 그들을 둘러싼 러시아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위장막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안내서』에서와는 달리 『또 다른 하늘』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경찰은 매우 억압적이고, 의사는 그저 냉담할 뿐이다. 이런 면에서 베라 스트로제바(Вера Стржева)의 영화 『내 남자친구는 천사』(Мой парень - ангел, 2011)에 나오는 이주노동자가 영 겁결에 병원 신세를 지고 돌아온 뒤 다시 만난 여주인공에게 하는 말은 경청할 만하다. “병원 정말 좋대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죄다 술에 취해 있다니까요!” 이 말이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지, 과연 누가 더 이상한지 러시아 사회에 묻는 말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소비에트 시절 러시아 사람들은 ‘민족우호’ 기치 아래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들과도 형제자매 사이처럼 잘 지내곤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을 점점 더 기피하다 못해 사갈시하기까지 한다. 이런 추세를 막아보고자 <톨레랑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타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바로 『안내서』에서처럼 가재도구로 변한 이주노동자들의 괴상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소되지 않는 한 영화에서 관찰되는 암울한 일상은 러시아 사회의 부정적 자화상으로 그대로 굳어질지 모른다.

‘자유의’ 벨라루스인

김혜진 (한국외대 HK연구교수)

벨라루스의 어원

벨라루스인(Беларусы) 또는 벨로루시인(Белорусы)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과 함께 동슬라브족을 이룬다. 벨라루스인들은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벨라루스 공화국의 주민족이라 할 수 있다. 벨라루스란 말은 ‘희다’라는 벨리(белый)와 러시아를 뜻하는 루스(Русь)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으로, 과거에는 ‘벨라야 루스’(Белая Русь)라고도 불렸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벨라루스를 ‘백러시아’로 부르기도 했다. 벨라루스인들은 고대 시기 러시아어인과 한민족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벨로루스의 ‘루스’라는 이름은 고개를 끄덕일만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얀’ 러시아일까?

러시아어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는 종종 색깔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붉은 광장’이 붉다는 순수한 색깔의 의미가 아닌, ‘아름다운’, ‘주요한’ 등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 ‘흰’, ‘하얀’의 뜻을 가진 ‘벨리’라는 형용사는 ‘남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면제의’, ‘명문의’ 등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다. 과거 벨라루스인들, 특히 현재 벨라루스 땅의 북쪽과 북동쪽



그림 1. 벨라루스 공화국의 주요 도시 위치
(출처: <http://www.belarus.by>)



에 살던 사람들은 러시아인과는 달리 몽골-타타르나 리투아니아인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어떤 조공도 바치지 않았다. 어떤 민족의 지배를 받지도,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던 벨라루스인들은 말 그대로 구속받지 않은 독립적인 민족이라는 것이다. 반면 옛 벨라루스 땅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지역(지금의 민스크 서쪽, 그로드노 지역)은 타민족의 지배에 굴복했기 때문에 “초르나야 루시”(Черная Русь, 흑러시아)라고 불렸다. 그러나 ‘벨라야 루시’라는 이름은 점차 벨라루스 전 지역 뿐만 아니라, 18세기에는 벨라루스와 접하고 있는 타지역 주민들까지 일컫는 말로 확대되었다.

역사문화적 특징

하나의 거대한 고대 러시아민족에 포함되었던 벨라루스인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은 11세기에서 12세기로 보고 있다. 당시 키예프 루시는 봉건적 형태를 띤 작은 공국들로 나뉘지게 되었다. 스몰렌스크 공국, 폴로츠크 공국(Полоцкое княжество), 투로프 공국(Туровское княжество)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벨라루스인의 선조라 하겠다. 1240년 벨라루스인들이 세운 공국들과 리투아니아 공국들이 통합되면서 라디미치(Радимичи)나 드레고비치(Дреговичи)와 같은 고대 종족들이 살던 거의 모든 땅은 대(大)리투아니아 공국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13세기 중엽 무렵에는 러시아 서쪽 땅이 독립되면서 벨라루스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민족으로 거듭났으며, 14-16세기 동안 벨라루스인만의 전통문화와 언어체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벨라루스어는 민족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리투아니아인들이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벨라루스인들이 리투아니아 공국으로 통합된 후에도 벨라루스어는 이 공국의 공식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4세기 말부터 리투아니아가 폴란드에 통합되면서 벨라루스 영토에서는 폴란드화가 진행되었으며, 폴란드어가 공식국어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벨라루스인에 대한 폴란드 문화와 언어, 종교(카톨릭)의 영향은 점차 커졌으며, 이는 특히 벨라루스 서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8세기 동안 세 번에 걸쳐 진행된 폴란드의 분리 후 벨라루스는 다시 러시아에 편입되었으며, 러시아 문화가 벨라루스를 지배하게 되었다. 특히 1840년 니콜라이 1세의 칙령으로 ‘벨로루시야’, 또는 ‘벨라루스인’이라는 말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곳은 다만 러시아 북서현의 벨라루스 땅(Белорусские земли)으로 불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벨라루스인들은 자신의 국가성을 잃은 것이었고, 이는 사회주의 혁명 후에 복원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벨라루스의 문화와 언어, 종교, 정체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거양식

벨라루스인들이 살던 주택은 현관문과 창문이 거리를 향해 나 있고 집 뒤에는 텃밭이나 정원을 두는 구조를 띠고 있다. 벨라루스인의 집은 러시아



인의 전통가옥처럼 거리를 따라 지어진다. 이런 주택들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는데, 이런 마을을 ‘보스카’(вёска)라고 부른다.

벨라루스 영토 내에는 도시가 꽤 일찍부터 등장하였는데, 9-10세기에 형성된 벨라루스 고대 도시로는 폴로츠크(Полоцк), 브레스트(Брест), 그로드노(Гродно), 오르샤(Орша), 비텡스크(Витебск), 민스크(Минск) 등을 들 수 있다. 이 도시들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적인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들은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이어지는 옛 길을 따라 등장했거나, 드네프르 강(우크라이나)에서 드비나 강(라트비아 공화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형성되었다.

벨라루스의 전통가옥 형태는 ‘하타’(хата)이다.

하타는 둥근 통나무로 만들어지며, 내부에는 점토를 바른다. 맞배지붕 위에는 짚, 갈대 혹은 얇은 널 판지를 덮는다. 전통적으로 가옥 바닥에는 흙이나 점토를 발랐으나, 19세기 말 무렵 동쪽 지역에서는 바닥에 나무를 깎아 가옥들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남쪽 지역의 경우, 우크라이나 흙벽 오두막집인 마잔카(мазанка)처럼 가옥 외벽에 회반죽을 하얗게 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타의 내부 구조는 러시아의 이즈바처럼 방이 구분되지 않은 큰 방 하나로 구성되어 있거나 살림살이나 건초를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딸린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그림 2. 벨라루스의 하타 모습 (출처: <http://enhver.ru>)





의복

벨라루스인들의 전통의상은 대부분 흰 색으로 다양한 자수와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전통적인 남성의상은 집에서 짠 아마포로 만든 ‘카술리’(кашули)로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상의이다. 카술리의 허리 부분은 보통 끈으로 묶는다. 바지 역시 흰색의 아마포로 만들며 여기에 검은 장화를 신는다. 옷자락이나 깃, 가슴 부분에 무늬가 들어가지도 한다. 남성들은 여름에는 브릴(брыль), 카펠류시(капелюш)와 같은 밀짚모자를, 겨울에는 쿠츠마(кучма), 아블라부하(аблавуха)라는 모피모자를 쓴다.

벨라루스의 여성의상은 남성의상보다 더 다양하며 민족적인 색채가 뚜렷하다. 카술리와 유사한 일자모양의 사제복같은 루바하를 입지만, 가슴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거나 어깨 부분에 천을 덧대기도 한다. 그리고 안도락(андорак 또는 андрак), 사얀(саян) 등 가로 줄이나 세로 줄이 들어간 다양한

색깔의 치마를 입는다. 치마 위에는 나사로 만든 포노바(Понёва)나 레이스나 주름장식, 혹은 색색의 허리띠로 장식된 파르툽(фартук)과 같은 앞치마를 맨다. 여기에 가르세트키(гарсетки)라는 소매 없는 조끼를 입기도 한다. 여성의 머리장식은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혼여성들은 머리카락을 묶어 체네츠(ченец)라는 두건이나 후스트키(хустки)라는 손수건, 혹은 나미트카(намитка)라는 스카프를 두른다. 미혼여성들은 머리를 풀고 가느다란 리본이나 띠를 두른다.

벨라루스인의 전통신발은 버드나무나 보리수의 속껍질이나 그 가지로 만든 짚신 또는 가죽 한 장으로 되어 있어 끈으로 묶는 포스톨리(постолы)이다. 겨울에는 펠트로 만든 장화를 신고, 특별한 경우에만 보티(боты)라는 구두나 단화를 신는다.

오늘날 벨라루스 전통의상은 주로 명절 때만 볼 수 있으나 옛부터 많이 사용해 오던 장식이나 색상의 조화 등은 여전히 벨라루스인의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벨라루스인의 전통의상 (출처: <http://www.belarus.by>(좌), <http://grow.clicr.ru>(우))



음식

벨라루스인들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도 대부분 농산물이 차지했다. 주요 음식은 호밀로 만든 신 맛이 나는 빵이었다. 탈곡한 곡물로는 블린 뿐 아니라 크루프닉(крупник)이라는 수프와 쿨레시(кулеш)라는 농도가 짙은 죽, 그리고 주르(жур)라는 젤리를 만들어 먹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18세기부터 감자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음식들이 벨라루스인들의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다. 감자로 만든 음식으로는 살로니키(салоники)라는 깨끗이 씻어 삶은 감자부터 우리나라의 감자전 같은 드라니키(драники)와 감자 수프 등을 들 수 있다. 벨라루스인들은 다양한 음식에 약간의 우유를 섞어 요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이, 양파, 배, 사과, 체리, 자두, 수박 등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하여 호박씨나 해바라기씨는 벨라루스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먹는 것들이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늦가을과 겨울에는 러시아

인들처럼 벨라루스인들도 다양한 음식에 구운 살로(сало, 고기 기름 등을 굳힌 것) 조각을 곁들여 먹는다.

벨라루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살로나 햄을 넣은 오플렛인 야예시냐(яешня), 잘게 썬 야채와 고기 등을 넣은 수프인 홀로드닉(холодник), 고기나 생선의 조린 국물이 엉겨 굳어진 수투덴(студень) 등을 들 수 있다. 구운 돼지갈비나 콜바사 등에 살로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걸쭉한 소스인 모찬카(мочанка)를 블린과 함께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강이 발달한 벨라루스의 북서쪽이나 남쪽의 식단에는 빠짐없이 생선요리가 등장했다. 벨라루스인들은 자연에서 채취한 버섯, 돌배, 산열매(щавель) 등을 음식에 사용하지만,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이 주로 먹는 버찌, 마가목 열매와 같은 야생열매나 식용버섯(свинушки, волнушки)은 먹지 않는다. 그 외 벨라루스인의 전통음료로는 자작나무 즙, 붉은 무나 호밀로 만든 크바스를 들 수 있다.



그림 4. 모찬카와 블린(좌), 쇠고기 스투덴(우) (출처: www.internetlive.ru)



가정과 의례, 관습

19세기 말까지 벨라루스의 농촌 가정은 아버지의 가족, 혹은 아버지 형제의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가족 형태였다. 친인척이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생활이 특징이었으며, 이런 형태는 20세기 초까지도 유지되었다. 우리나라의 두레처럼 벨라루스 농촌에는 탈로카(талока), 샤브리나(сябрына)와 같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특정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을의 중요한 사안들은 각 가정의 가장들이 참석하는 마을 집회인 스흐드(сход)에서 결정했다.

모든 민족의 관습과 의례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가정의례라 할 수 있겠다. 가정의례 중 빠질 수 없는 것은 아이의 출생 의례와 세례이다. 아이의 세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아이를 받은 산파나 할머니이다. ‘할머니의 죽’(бабкіна каша), 혹은 ‘할머니의 파이’(бабкіны пірогі)라는 세례 음식이 바로 여

기서 비롯되었다. 특히 ‘할머니의 죽’은 음식 자체 보다는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의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세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죽을 나눠먹기는 하지만, 찻숟가락 하나 정도로만 맛을 볼 뿐이다. 메밀이나 수수에 우유, 버터를 넣어 걸쭉하게 끓이는 이 죽은 아이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파나 아이의 대부인 ‘쿰(кум)’은 죽이 든 단지를 머리 위로 높이 올려 ‘쑹쑹 키가 자라라’라고 기원한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린다. 벨라루스인들은 이때 깨진 단지 조각이 많을수록, 그리고 죽이 사방으로 많이 튀어 흩어질수록 아이도 많이 낳게 된다고 믿었다. 땅에 흘리지 않고 남아 있는 죽은 산모나 산파, 어린 아이들이 나눠 먹는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죽을 먹이는 것은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아이를 잘 돌봐주고 보호해 주라는 의미에서이다. 때로는 세례식에 참석한 아이들이 죽을 들고 집밖으로 뛰어나가 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 수탉이나 암탉의 우리에 갖다 놓는데, 태어난 아이가 빨리 뛰는 것을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는 의례 행위이다.



그림 5. 벨라루스 전통 결혼의상(좌)과 결혼식 장면(우) (출처: <http://tio.by>, <http://www.zarechany.by>)



가정의례 중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결혼식이다. 벨라루스인들의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파사드’(пасад)이다. 신부는 자신의 순결을 확인하고 양가의 최종 허락과 축복을 받기 위해 반죽통(дзяжа) 위에 앉는다. 이 반죽통 안에는 카라바이(каравай)라는 크고 둥근 빵을 만들기 위한 반죽이 들어있으며, 통 위에는 코주스(кожус 가죽옷, 모피 외투)를 뒤집어 덮어 놓는다.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는 이 의식은 혼전 동거가 흔해져버린 오늘날 벨라루스에서 원래의 의미를 잃었으나 여전히 전통혼례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손님들은 카라바이를 나눠먹는데 이때 부르는 ‘잘바 카라바이(дзяльба карабаю, ’잘바‘는 나눔, 분배라는 뜻)’라는 독특한 노래는 결혼식이 끝났음을 알린다.

* * *

벨라루스인은 러시아인과 함께 동슬라브인을 이루는 만큼 민족문화나 전통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벨라루스 역사의 흔적과 독특한 문화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때 어느 민족에게도 구속받지 않아 ‘자유 의 러시아인’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벨라루스인들은 소련 해체 이후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독립국가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 ‘자유로운’이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아직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Russia & Russian Federation

2. 정보마당

- 러시아어 Tips 1, 2
- 역사상식
- 음식문화탐방
- 가볼만한 곳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ВАС ЗОВУТ ?

Вы хорошо говорите по-русски?

МНЕ 20 ЛЕТ. У НЕГО ЕСТЬ КОМПЬЮТЕР?

ЧТО ЕСТЬ У НЕГО ДРУЗЕЙ?

У НЕГО ДРУГИ БЫЛИ ЭКЗАМНЫ.

김민수 (한국외대 HK교수)

러시아어 Tips(1)

사용 빈도수가 높은 러시아어 명사 활용 표현(8)¹⁾

1	действие	2	государство	3	язык	4	любовь	5	взгляд
6	век	7	школа	8	цель	9	общество	10	деятельность

1. действие

(1) [명사+명사]

- 행동 양식 образ действия/ 행동반경 радиус действия/ 행위의 자유 свобода действия/ 행동 절차 порядок действия/ 로드맵 поэтап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유효기간 срок действия/ 시간, 장소, 행위의 일치(연극) единство времени, места и действия/ 액션페인팅 живопись действия/

(2) [동사+명사]

- 기계를 작동(가동)시키다 привести механизм в действие/ 효력을 발휘하다 вступить в действие/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 вводить программу в действие/ ~에 작용하다(효력을 발휘하다) оказать действие на что-л./ 독의 작용을 중화시키다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действие яда/

(3) 기타

- 군사행동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부작용 побочное действие/ 반응 ответное (обратное) действие / 물의 작용으로 마모된 밸브 клапан, изношенный под действием воды/ 효력이 상반되는 약 лекарства,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по действию/ 계획을 실행에 옮기다 проводить план в действие/ 액션 플랜을 구성하다 составить план действий/ 어떤 행위를 하도록~

에게 권한을 위임하다 уполномочить кого-л. на совершение каких-л. действий/

2. государство

(1) [명사+명사]

- 국가 원수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도시국가 город-государство/ 발트 해 연안국 государства Балтийского моря/ 구소련 국가 государства бывшего СССР/ CIS 국가 государства-участники СНГ(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회원국 государство-член/ 국가 자산 имущ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а/ 국가의 주권 суверенитет государства/ 국가 방위와 안보 оборон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복지국가 государство всеобще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2) [동사+명사]

- 건국하다 создать(осно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о/ 국가를 안정시키다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о/ 국가를 경영하다 управлять государством/ 국가를 지키다 защищать государство/ 국가를 전복시키다 свергнуть государство/

(3) 기타

- 법치 (주권, 민주)국가 правовое (суверенное, демо-

1) 2011년 4회 연재에 이어 2012년에도 매호에 활용빈도가 높은 명사 10개가 포함된 유용한 구문들을 제시한다. 명사 빈도수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비노그라도프 연구소의 Новый частотн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й лексики에 제시된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крат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다민족 국가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영세 중립국 постоянно-нейт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산유국 нефтя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비핵국 неядер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접경국 пограничные(сопредель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동맹국 союз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카스피해 연안국 Прикаспи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완충국 буфер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3. ЯЗЫК

(1) [명사+명사]

- 랑그와 빠롤 язык и речь/ 네이티브 스피커 носитель языка/ 언어 사멸 смерть языка/ 언어습득 усвоение языка/ 러시아연방 제 민족 언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языках народов РФ/ 언어의 지위 статус языка/ 수화 язык жестов/ 바디랭귀지 язык тела/ 프로그래밍 언어 язык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 язык обучения/ 종의 추 язык колокола/ 불꽃 язык пламени/

(2) [동사+명사]

- (말하고 싶지만) 잠자코 있다 прикусить язык (=не давать воли языку)/ 침묵을 지키다 держать язык за зубами/ 러시아어 능력을 향상시키다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зн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종추를 흔들다(흔들어 종소리를 내다) раскачивать язык колокола/ ~와 공감대를 발견하다 найти общий язык с кем-л./

(3) 기타

- 모어(모국어) родной язык/ 굴절어 флективные языки/ 교착어 агглютинативные языки/ 고립어 изолирующие языки/ 국어와 공식어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официальные языки/ 초급러시아어 코스 кур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начинающих/ 그녀는 아주 수다스럽다. У неё слишком длинный язык./ 영어본과 러시아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В случае несоответствия между версией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 версией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ерсия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преимуще-

ственную силу./

4. ЛЮБОВЬ

(1) [명사+명사]

- 연애결혼 брак по любви/ 사생아 дитя любви/ 음악에 대한 사랑 любовь к музыке/ 짝사랑 любовь без взаимности (=безответная любовь)/ 첫눈에 반한 사랑 любовь с первого взгляда/ 사랑의 포로 пленник любви/ 러브스토리 рассказ(повесть, роман) о любви/

(2) [동사+명사]

- 사랑을 고백하다 объясниться(признаться) в любви/ ~가 ~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다 внушить(прививать) кому-л. любовь к чему-л./ 청년들의 애국심을 키우다 воспитать у молодёжи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의 사랑을 쟁취하다 завоевать чью-л. любовь/

(3) 기타

-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из любви к искусству/ 사랑은 맹목적이다. Любовь слепа./ 사랑에는 약이 없다. От любви нет лекарства./ 플라토닉 러브 платоническая любовь/ 육체적 사랑 плотская(физическая) любовь/ 아가페적 사랑 духовная(христианская) любовь/ 믿음, 소망, 사랑 вера, надежда, любовь/ 사랑과 동정은 간발의 차이이다. От жалости до любви один шаг./

5. Взгляд

(1) [명사+명사]

- 시각의 일치 единство взглядов/ 인생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 общий взгляд на жизнь/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시각) 차이 различие(расхождение) во взглядах



по какому-л. вопросу/ 시선의 방향 направление
взгляда/ 시각과 입장의 이해 понимание взглядов и
позиций/

(2) [동사+명사]

- 눈길을 마주치다 встретиться с кем-л. взглядом/ 시
선을 교환하다 обмениваться взглядами/ 눈길을 돌리
다 отвести взгляд/ ~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다 достичь современного взгляда на что-л./ 시선
을 끌다 привлекать взгляд/ 특정한 시각을 고수하다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згляда/

(3) 기타

- 호기심어린 눈빛 любопытный взгляд/ 낙관
적 시각 оптимистический взгляд/ 무심한 눈길
безразличный(безучастный) взгляд/ 명한 눈빛 за-
туманенный взгляд/ 화난 눈빛 сердитый взгляд/ 탐
욕스런 눈길로 жадным взглядом/ 의아해하는 눈길
вопрошающий(вопросительный) взгля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다 посмотреть на проблему
свежим взглядом/ 내 생각에는 на мой взгляд/ 언뜻
보기에는 ~처럼 보인다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кажется, .../
그녀의 눈길이 일순간 그에게 머물렀다. Её взгляд на
мгновение задержался на нём./

6. век

(1) [명사+명사]

- 파충류의 시대(중생대) век рептилий (=мезозой)/
중세의 세계관 мировоззрение средних веков/ 과
학적 발견의 시대 век научных открытий/ 20세
기 말에서 21세기 초 사이에 на рубеже XX-XXI
веков/ 21세기 초에 на заре XXI века/ 원자시대 век
атома (=атомный век)/ 수세기에 걸쳐서 на протя-
жении многих веков/ 4반세기 четверть века/

(2) [동사+명사]

-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다 не отставать от веков/ 한
물가다 отжить свой век/

(3) 기타

- 구석기 시대 древнекаменный век(=палеолит)/ 신
석기 시대 новокаменный век(=неолит)/ 청동기 시
대 медный (=бронзовый) век/ 철기시대 железный
век/ 황금기 золотой век/ 우주시대 космический
век/ 세세히 영원히 во веки веков/ 사람은 평생 배
워야 한다. Век живи, век учись./

7. школа

(1) [명사+명사]

- 특목고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средняя школа/ 비즈
니스 스쿨 школа бизнеса/ 승마학교 школа верхо-
вой езды/ 운전면허학원 школа водителей/ 미션
스쿨 школа для обращённых/ 영재학교 школа для
одарённых детей/ 기숙학교 школа-интернат/ 댄스
학원 школа танцев/ 전학 перевод из одной школы
в другую/ 학비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 재적
학생 총수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зачисленных учени-
ков в школе/

(2) [동사+명사]

- 학교에 입학하다 поступить в школу/ 학교에 다니
다 ходить в школу (=посещать школу)/ 학교에 지
각하다 опоздать в школу/

(3) 기타

- 사립학교 частная школа/ 미술학교 художествен-
ная школа/ 음악학교 музыкальная школа/ 야학 ве-
черняя школа/ 서머스쿨 летняя школа/ 초중등학
교 졸업장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кончании школы/ 학
교 갈 시간이다. Пора идти в школу./ 학교 수업을
빼먹다. прогуливать(пропустить) занятия в шко-
ле/ 학업 성취도를 높이다 повысить успеваемость
в школе/ 융 심리학과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школа
Юнга/



8. цель

(1) [명사+명사]

- 실사 визит с целью выяснения фактов/ 목표지점까지의 최단거리 선택 выбор кратчайшего пути к цели/ 목표 달성 достижение цели/ 목표 없는 인생 жизнь без цели/ 목표와 수단 цели и средства/ 입국 목적 цель въезда/

(2) [동사+명사]

- 과녁을 빗나가다 бить мимо цели/ 과녁에 적중하다 попасть в цель/ 목표를 타격하다 поразить цел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다 добиться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목적에 부응(합)하다 отвечать цели/ 목표를 부과하다 поставить цель/ 목표를 설정하다 формулировать цели/ 목표를 추구하다 преследовать цель/ 군사적 목적으로 지출하다 расходовать на военные цели/

(3) 기타

- 일차적 목표 первоочередные цели/ 야심찬 목표 амбициозная цель/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 труднодостижимая цель/ ~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использовать что-л. в личных целях/ 최종 목표 конечная цель/ ~을 목적으로 с целью (в целях) чего-л. или ин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Цель оправдывает средства./

9. общество

(1) [명사+명사]

- 사회악 пороки общества/ 소비자보호협회 Общество защиты потребителей/ 사회의 다양한 계층 различные слои общества/ 사회취약계층 уязвимый слой общества/ 중산층 средние слои общества/ 학회 정회원 член научного общества/

(2) [동사+명사]

- 사회를 건설하다 создать общество/ 사회(회사)에 해를 끼치다 наносить ущерб обществу/

(3) 기타

- 주식회사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정보사회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общество/ 부계사회 патриархальное общество/ 선진 사회 передовое общество/ 사회 내 신분의 지표 показатель положения в обществе/ 상류사회 высшее общество/ 언어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커다란 힘이다. Язык - великая сила, которая связывает общество./

10. деятельность

(1) [명사+명사]

- 업종 вид деятельности/ 활동분야 область деятельности/ 활동결과보고서 отчёт о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기업 등) 감사 анализ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광고활동 전략 стратегия реклам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마케팅 활동의 효율성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аркетин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2) [동사+명사]

- 활동을 개시하다 вступить (заняться) какой-л. деятельностью/ 활동을 중단하다 (재개하다) приостановить (возобнови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3) 기타

- 대외경제활동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된 вызванны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человека/ 입법 활동 законотвор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학술연구활동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마피아 활동 연구 изуч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мафии/ 홍보활동 информационно-пропагандист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ВАС ЗОВУТ ?

Вы хорошо говорите по-русски?

МНЕ 20 ЛЕТ. У него есть компьютер?

Что есть у его друзей?

У моего друга были экзамены

김민수 (한국외대 HK교수)

러시아어 Tips(2)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대화

- A: Я хотел бы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о том, в какие ценные бумаги лучше всего вложить средства.
- B: Все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с какой целью вы хотите осуществить вложения: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высокого дохода за короткий период или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более умеренного доход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 A: Честно говоря, я плохо ориентируюсь в ситуации на фондовом рынке. Не могли бы вы подробнее рассказать о имеющихся опциях.
- B: Конечно. Как правило, самыми надежными являются вложения в облиг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айм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доходность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номинала и срока, а также от страны, выпустившей заем.
- A: Сколько в среднем может составлять доход в процентном выражении?
- B: Как я уже отметил, он сильно варьируется, минимальный доход может составлять 1,5% в год, а максимальный – 4-6%. Например, доходность по облигациям ‘Россия-2018’ превышает 6%.
- A: Какова минимальная номинальная стоимость облигаций?
- B: Опять же все зависит от их характера – долгосрочного или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 A: Пусть это будут облигации сроком на 10 лет.
- B: Из облигаций российского займа, находящихся в обращени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д это определение подходят облигации ‘Россия-2020’. Их номинальная стоимость – 100,000 долларов США на одну облигацию при среднегодовой доходности 5%.

* * *

- A: 어떤 증권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B: 모든 것은 투자 목적에 달려있습니다. 단기 고수익을 얻으려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 A: 솔직히 말해서, 저는 증권시장 상황을 잘 모릅니다.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B: 그러지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 국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수익은 액면가와 채권 발행국가에 달려 있습니다.
- A: 평균적으로 수익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 B: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은 다양합니다. 최소 수익은 연간 1.5%정도가 되고, 최대 수익은 연간 4-6%가 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국채인 ‘러시아 2018’은 6% 이상입니다.
- A: 채권은 최소 액면가는 어떻게 되나요?
- B: 그것도 역시 장기채권이나 단기채권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 A: 10년짜리 채권인 경우면요?
- B: 그런 조건이라면 오늘 거래되는 러시아 국채 가운데 ‘러시아 2020’이 적합합니다. 액면가 10만 달러에 평균 수익률 5%입니다.



1. 상담 консультация, 상담을 해주다 (받다) дать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법률가에게 상담을 청하다 обратиться с консультацией к юристу, 금융-대출 상담 финансово-кредит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전화 법률 상담 телефонная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의료 상담 медицин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2. 증권 ценные бумаги, 증권 발행 выпуск ценных бумаг, 증권 시장 рынок ценных бумаг, 증권의 유동성 ликвидность ценных бумаг,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 получить кредит под залог ценных бумаг, 유가증권 매매 주문 заказ о покупке или продаже ценных бумаг, 증권거래법 закон о торговле ценных бумаг
3. 채권 облигация, 무기한 채권 бессрочные облигации, 기명 채권 именная облигация, 무기명 채권 неименная облигация, облигация на предъявителя, 채권 상환 погашение облигаций, 고수익 채권 высокодоходная облигация, 주택 채권 жилищная облигация
4. 옵션 옵션, 유로 옵션 платная опция
5. 모기지 론 заём под залог недвижимости (= ипотечный заём), 대부상환능력 способность погасить заём, 고정금리 대출 заём с фиксированной ставкой, 대출 이자를 선금으로 받다 получить проценты на выданный заём авансом, 장기저리대부 долгосрочный льготный заём, 무이자 대부 беспроцентный заём
6. 액면가 номинал, номинальная стоимость, 무액면 주식 акции без номинала, 액면가 상환 погашение по номиналу (по истечению срока), 거래 종료 시점의 액면가 номинал на момент закрытия сделки, 액면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по цене выше номинала
7. 퍼센트로 표시하여 в процентном выражении, 금액으로 표시된 가치 стоимость в денежном выражении, 실물투자 инвестиции в материальном выражении
8. 장기적인 долгосрочный, 중기적인 среднесрочный, 단기적인 краткосрочный, 장기 전망 долгосрочный прогноз, 장기적 비전 долгосрочное видение, 장기협력협정 соглашение о долгосроч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9. 거래, 유통 중인 находящийся в обращении, 한시적으로 유통을 중지시키다 временно исключить из обращения, 현금 유통 налично-денежное обращение, 상품 유통 обращение товаров, 화폐를 유통시키다 пускать деньги в обращение
10. 수익률 доходность, 부동산 임대 수익률 доходность от сдачи недвижимости в аренду, 기대 수익률 предполагаемая доходность, 수익률과 리스크 수준 간 상관관계 соотношение между доходностью и уровнем риска, 투자자 요구 수익률 требуемая ставка доходности инвестора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는 차이나타운?

김혜진 (한국외대 HK연구교수)

크레믈린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곳 중의 하나는 키타이고로드(Китай-город)이다. 키타이고로드는 한때 ‘벨리키 포사드’(Великий посад, 혹은 볼쇼이 포사드, 대규모 시장)로 불렸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교역하던 장소였다. 이 지역은 본래 오늘날 크레믈린이 위치한 곳에 있었으나 이반 1세와 드미트리 돈스코이 시기에 모스크바 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크레믈린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동쪽으로 밀려나게 됐다. 1533년 이 지역을 포함해 크레믈린 동쪽에 군사적 목적으로 ‘키타이고로드 성벽’(Китайгородская стена)이 구축되면서 성벽 안 지역을 ‘키타이고로드’라 부르게 됐다. 크레믈린 벽을 구성하고 있는 베클레미셰프 탑(Беклемишевская вашня)에서 무기고 탑(угольная Арсенальная вашня)에 이르는 키타이고로드 성벽은 크레믈린보다 높이는 낮았지만, 두께는 약 6m에 이를 정도로 더 넓어 화포 진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국을 뜻하는 러시아어 ‘키타이’(Китай)라는 단어 때문에 키타이고로드를 차이나타운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키타이고로드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차이나타운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러시아 학자들은 이 도시의 이름이 ‘키타’라는 옛 러시아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지금은 러시아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는 가늘고 긴 막대기나 나무 등을 다발 등의 형태로 엮은 것을 의미하며, 키타는 성벽의 초기 건축재료로 사용됐다고 한다. 여기에 ‘도시’라는 뜻의 ‘고로드’(город)와 합쳐져 ‘키타이고로드’라는 이름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또 다른 주장은 당시 이 성벽을 건설한 표트록 말로이(Петрок Малой)가 이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성, 요새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citta(cittadelle)’에서 현재의 이름이 기원했다는



그림 1. На крестце в Китай-городе. 1902. А.М. Васнецов. 키타이고로드의 소광장에서. 1902년 바스네초프, (출처: <http://artcyclopedia.ru>)

것이다.

혹자는 이곳에 중국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키타이고로드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지만, 중국 상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혹여 있었다 하더라도 수적으로 더 많은 아르메니아인, 독일인, 그리스인 등이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러시아에서는 중국을 키타이가 아닌 ‘치나’(China)라고 불렀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도 키타이고로드는 중국이나 중국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키타이고로드는 모스크바 공국 시기부터 1930년대까지의 러시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처음 이곳은 다양한 지역에서 몰려온 상인들

과 수공업자들이 활발하게 교역했던 유명한 상업 지역이었으나,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귀족들이 몰려들면서 귀족적이고 부유한 지역으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타이고로드는 모스크바 내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17세기에는 조폐소가, 19세기에는 은행과 각종 거래소 등이 생길 정도로 번창했다. 이곳은 무역 지역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표트르 대제가 통치하기 전 키타이고로드는 출판업과 교육의 중심지였다. 16세기 중엽 이 지역의 니콜스카야 거리에는 인쇄소가 건립됐고, 러시아의 첫 고등교육기관이자 미하일 로모노소프(모스크바 국립대 창시자)가 수학했던 슬라브-그리스-라틴 아카데미가 문을 열기도 했다. 반면, 소비에트 시기에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건물(ЦК



КПСС) 등 국가기관 및 당 기관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지어지면서 키타이고로드는 소비에트 행정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스탈린 시기 도시 재건축으로 인해 키타이고로드 성벽은 붕괴됐으며, 현재 그 일부만 남아 있다. 이후 또 다른 성벽 일부가 복원돼 키타이고로드 프로예즈드(Китайгородское проезд)라 불리고 있으며, 1990년에는 노긴 광장(Площадь Ногина) 지하철역이 키타이고로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자칫 지하철역 이름으로 인해 그 부근만 키타이고로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키타이고로드는 붉은광장에서 시작돼 굼(ГУМ) 백화점과 북쪽으로 오호트니 라드(Охотный ряд)와 극장 광장(Театральная площадь), 동쪽으로 루반카(Лубянка)와 스타라야 광장(Старая площадь),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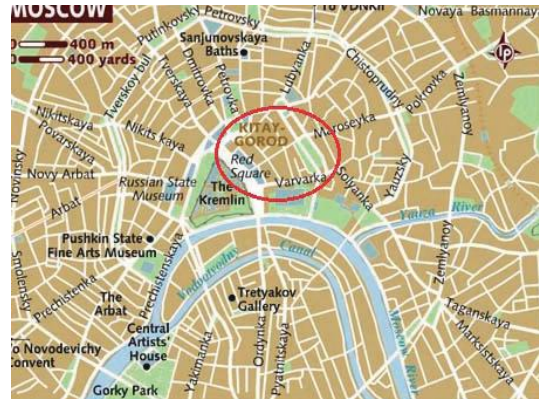


그림 2. 키타이고로드 지역의 위치(빨간 원 부분)
(출처: <http://www.lonelyplanet.com>)

쪽으로 모스크바 강에 접하는 지역까지, 모스크바의 중심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모스크바를 찾는 많은 이들이 반드시 밟게 되는 곳이 바로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키타이고로드인 셈이다.



그림 3. 키타이고로드 (바스네초프 작, 출처: www.yandex.ru)

빵과 소금: 손님 환대

황 성 우 (한국외대 HK교수)

식사 전후에 빵과 소금을 먹으면 행운이 찾아온다.

В начале и в конце обеда съесть кусочек хлеба с солью - к счастью.

러시아 TV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볼거리 중 하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빵과 소금을 들고 그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이나 고위인사, 혹은 외국 공식사절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여인들이 민속의상을 입고 빵과 소금을 들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방문객은 빵을 손으로 조금 뜯어 소금을 찍어 먹음으로써 접대에 응하는 행동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독의 연인'이란 제목으로 상영된 러시아 영화에서도 내전시기 백군으로 활동한 콜차크 장군이 옴스크에 입성할 때 그곳 주민들이 빵과 소금으로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또한 모스크바나 대도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테이블 위에 얇게 썰어 가지런히 놓인 빵과 그 옆에 소금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빵과 소금은 러시아에서 손님을 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빵과 소금'(хлебосоольство)이 손님 환대를 의미하는 것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어의 '빵과 소금'(Bread and salt) 역시 손님 환대를 의미한다. '빵'은 원래 라틴어 '파니스'(panis)에서 유래했다. 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파네'(pane), 스페인어 '판'(pan), 프랑스어 팽(pain) 모두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빵을 뜻하는 영어의 '브레드'(bread)는 원래 한 조각, 또는 작은 조각을 뜻하는 말이지만, 영어에도 라틴어 빵의 의



그림 1. 손님 환대 (출처: www.yandex.ru)



그림 2. 빵을 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출처: www.yandex.ru)

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 동료나 친구를 의미하는 ‘컴패니언’(companion)이나 회사를 의미하는 ‘컴패니’(company)가 ‘함께 빵을 먹다’라는 의미이다. 1066년 영국을 정복한 윌리엄 1세(William the Conqueror, 1028~1087) 이후 프랑스어가 영어 속으로 침투해 영국 귀족의 공용어가 될 때 프랑스어의 영어화된 표현으로 이 단어들 등장했다.

빵과 소금은 어떻게 손님 환대의 상징이 됐을까? 그 대답은 빵과 소금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식이자 가장 귀중한 음식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영어 ‘bread’에 빵이라는 뜻 이외에 ‘생계’라는 뜻이 있고, 흔히 ‘버터 바른 빵’이라는 뜻의 ‘bread and butter’도 ‘생계를 위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인다. 러시아어의 경우에도 빵을 뜻하는 ‘хлеб’은 생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해야만 했다. 즉 자연의 산물을 직접 찾아 먹는 채집 생활과 도구와 토기를 사용한 경작 생활이 먹거리를 위

해 인간이 행하던 기본적인 경제활동이었다. 경작과 채집 중 어느 것이 인간에게 유리한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석기 혁명으로 정착과 경작이 가능해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이 가속화됐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단조로운 식사에 의존해 영양이 부족하고 신체도 허약해지는 단점이 있는 경작과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이 준 다양한 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채집 중 인간이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언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채집과 사냥으로 생활했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해 농사를 짓고 살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유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빵과 소금이 경작과 채집을 상징하는 음식이라는 것이다. 즉 경작과 채집을 통해 생산한 가장 귀중한 음식인 빵과 소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것이 타인을 환대한다는 의미로 변형됐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집을 나설 때 종종



그림 3. 결혼식에 빵과 소금을 함께 먹는 신랑 신부
(출처: www.yandex.ru)



그림 4. 빵과 소금을 들고 있는 그림
(출처: 모스크바 근교 레스토랑에서 필자 촬영)

문을 잠그지 않고 식탁 위에 빵과 소금을 놓고 가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때문이다. “빵과 소금은 거절하지 않는다”(От хлеба-соли не отказываются, и царь не отказывается)는 말은 러시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환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며, 반대로 “빵과 소금을 잊는다”(Забывать хлеб-соль)는 말은 ‘은혜를 저버린다,’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러시아인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만일 식사를 하기 전에 빵과 소금을 먹어버린다면 그가 몹시 배가 고프다는 뜻이고, 식사 이후에도 빵과 소금을 먹는다면 식사가 충분하지 않았다”(если можешь перед обедом хлеб с солью съесть - значит, голоден; а если и после обеда можешь - значит, не переел)고 믿었다. 주인은 빵과 소금을 통해 자신의 접대가 충분했는지를 가늠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손님의 입장에서 빵과 소금을 통해 주인의 접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빵과 소금’은 환대를 뜻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고대 러시아인들이 믿고 있는 주술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소금이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신의 선물인 빵과 함께 먹을 경우 건강에 좋다고 믿었다. 소금의 어원은 태양과 관련이 있는데, 태양(солнце)을 의미하는 고대 슬라브어는 ‘솔론’(солонь)¹⁾이었다. ‘идти по солонь’은 ‘идти по Солнцу,’ 즉 ‘태양을 향해 가다. 태양의 진행방향(동쪽에서 서쪽으로)으로 가다’라는 의미이다.

빛처럼 섬광처럼 환히 드러나는 백색 황금인 소금의 광채는 식물의 성장력을 관장하는 태양의 기능과 유사하게 생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 대지가 품고 만들어낸 빵, 하늘이 준 선물 소금.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두 가지 선물을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신의 섭리에 따른다는 인간의 본성을 빵과 소금을 통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1) 오늘날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옛 그리스의 항구도시 테살로니키는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다.

대륙으로 둘러싸인 유대인들의 작은 섬, 비로비잔(Биробиджан)

이 선 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그림 1. (출처: viaggisraele.blogspot.kr)



그림 2. (출처: www.slate.com)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으로 약 6,000km, 러시아 아무르 주(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와 하바롭스크 변강(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중국 헤이룽장성(黑龙江省)에 둘러싸인 외딴 섬이 있다. 바로 러시아 83개 행정구역 중 유일한 자치주이자, ‘잊혀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자치주’(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이다.

유대인 자치주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 그것도 러시아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다니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 할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곳은 한 때 3~4만에 달하는 유대인이 거주했던 곳이다. 아무르 강의 지류인 비라(Бира) 강과 비잔(Биджан) 강이 주(州)의 중심부를 나란히 관통하여 주를 삼등분으로 나누고, 그 이름을 딴 주도 비로비잔(Биробиджан)은 하바롭스크 변강과 가까운 주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그림 3. 유대인 자치주의 문장: 파란색의 두 줄은 비라 강과 비잔 강을 상징하고, 가운데에는 황금색 우수리 호랑이가 오른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 (출처: touristplaces.ru)



그림 4. 유대인 자치주의 기: 흰색 바탕은 유대민족을 상징하며, 7개의 선은 무지개의 다양성과 함께 유대 종교의식에 쓰이는 촛대(Jewish Menorah)의 7가지 색을 상징함. (출처: goldenkorona.ru)

시아 영토였던 리투아니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등지에 약 5백만에 가까운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시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반(反) 유대인주의적 성향이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존재했고, 소련이 수립될 즈음에도 러시아 영토 내 유대인은 이방인으로서 추방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이 레닌은 ‘국가는 아니지만 분리된’(a sect, and not a nation) 형태로 유대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1921년 노동하는 유대인 정착위원회(КОМЗЕТ)¹⁾

1) КОМЗЕТ: Комитет по земельному устройству еврейских

있다.

남한의 1/3을 조금 넘는 면적(36,000km²)의 이 땅에는 1928년까지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이 유대인 자치주가 된 것일까?

유대인 자치주 형성에 대한 필요성은 소련방의 형성과 그 시작을 같이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의 주도 세력인 볼셰비키 당에는 트로츠키, 스페르들로프, 지노비예프를 비롯한 다수의 유대인이 포진해 있었고, 당시 러



그림 5. 유대교회당 (출처: www.eao.ru)

는 다양한 후보지 중 프리아무리예(Приамурье)²⁾의 비로비잔 지역을 유대인들의 정착지로 결정하고, 1924년 소비에트 정부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1928년부터 러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고, 당시 티혼카야 역(Тихонькая-Станция)으로 불리던 현재의 비로비잔 역을 중심으로 유대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지역으로 유입된 유대인의 수는 1930년대에 이르러 4만 명에 육박하게 되고³⁾, 1934년 5월 7일 드디어 ‘유대인 자치주’가 공포됐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유대인을 위한 공식적인 행정구역이 지정된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 게다가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이니 유대인들에게는 최초이자 유일한 희망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소비에트 정부는 동화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소수민족이 언어와 문

трудящихся

2) 러시아 극동지역의 하바로프스크 변경,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주 지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www.eao.ru



그림 7. 1932년까지 티혼카야 역(Тихонья-Станция)으로 불리던 비로비잔 역.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난다. (출처: vienna-pyongyang.blogspot.kr)

화를 잃어갔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무렵에는 유대인들의 열렬한 민족적 반응으로 인해 스탈린을 비롯한 소비에트 정부의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러시아 내에서 강해지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반시오니즘(anti-Zionism)에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은 점차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이 시작되자 국외로 대거 이주했다. 그리하여 유대인 자치주인 이곳에는 현재 약 17만 6,500명⁴⁾

4) The 2010 Census reported the largest group to be the 160,185 ethnic

의 인구 중 1%만이 유대인이다. 사실상 명목상의 유대인 자치주로 남은 것이다.

그러나 주도인 비로비잔에는 여전히 곳곳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도로든, 철로든 이곳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러시아어와 함께 히브리어로 지명이 표기되어 있어 이곳이 지난날 유대인 자치주임을 짐작케 한다. 물론 이곳에도 어김 없이 레닌 광장에는 레닌 동상이 서 있지만, 도심의 공원에는 푸시킨 대신 유대작가 솔렘 알레이헴(Sholem Aleichem)이 인자하게 앉아 있다.

또 멀지 않은 곳에서 유대교 회당이자 유대인들의 행정, 교육 그리고 사교의 중심지라는 시나고그(Synagogue)도 볼 수 있다. 러시아정교 신자가 대다수인 러시아에서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채롭다.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이점 외에도 비로비잔은 유대인 자치주의 주도로서 그 상징성이 대단하다. 비

Russians (92.7%), followed by 4,871 ethnic Ukrainians (2.8%), and 1,628 ethnic Jews (1%). from wikipedia

그림 6. 비로비잔 시로 들어가는 경계에 러시아어와 히브리어로 함께 적힌 표석 (출처: basementgeographer.blogspot.kr)





로비잔에서는 매주 두 차례(화,목) 이디시어⁵⁾로 발간되는 유대인 신문도 있으며, 유대인 학교도 있다. 또한 유대인 뮤지컬 극장과 교향악단이 있으며, 199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유대인 전통 가무 축제는 9월 초에 시작해 34일간 진행된다. 이제 이 축제는 러시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 등도 참가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됐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해 비운의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이는 다민족·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최근 극동 지역 개발에 큰 관심이 있는 러시아 정부로서도 나쁘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

비로비잔은 예로부터 타 극동 지역과는 다르게 비옥한 토지로 농업과 산림업이 발달했다. 또한 철의 실크로드인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지나고, 극동 지역 최대의 도시인 하바롭스크와도 이웃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가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 협력 프로그램(2009-2018)’ 하에 추진해온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무르 철교까지 완성되면 불과 150km인 중국과의 국경이 더욱 가까워진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



그림 8. 유대작가 쇼렘 알레이헴(Sholem Aleichem)의 동상 (출처: www.eao.ru)



그림 9. 유대인들의 예술애가 느껴지는 악살스러운 동상들이 도시 곳곳에 있어 포토존이 되고 있다. (출처: 02varvara.wordpres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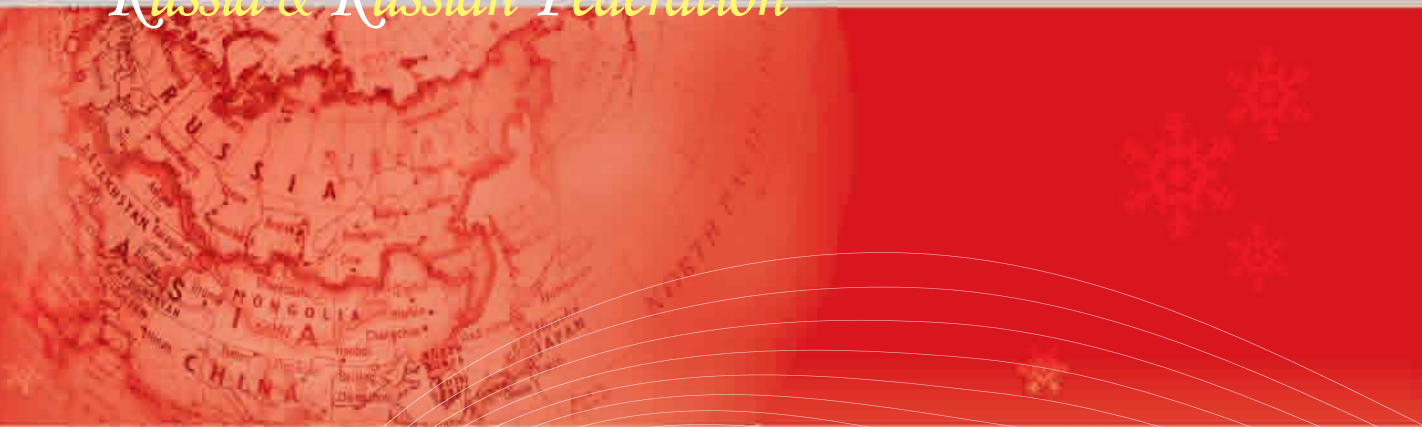
으로 극동의 새로운 심장부로 부상하고자 하는 시(市), 주(州) 정부 차원의 노력도 돋보인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 의정부시와 우호협력 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경제협력 확대, 공동 프로젝트 실현, 경제인 업무관계 수립 촉진은 물론 인문, 문화, 예술, 스포츠, 보건,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잊혀가는 러시아 속 이스라엘, 비로비잔!

주인마저 떠나버리고 그 이름만 남아 명맥이 어오고 있지만, 러시아와는 또 다른 독특한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먼 훗날 이름마저 희미한 역사 속 도시로 사라지기 전에.....

5) 독일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히브리어 방언

Russia & Russian Federation





Russia & Russian Federation

3. 알림마당

- 학술대회안내
- 신간안내
- Russia·CIS FOCUS 투고 안내
- 영문학술지 REGION
- 슬라브연구 논문 투고 안내





러시아 지방 학술대회 안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이외에도 지방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학술대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본 HK연구사업단의 연구 대상인 러시아 83개 연방주체와 연계하여 러시아 지방의 최근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러시아 지방의 학술동향은 이제까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글로벌화와 글로벌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러시아 지방의 학술적 관심사 및 동향 파악은 러시아를 더 심도 있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2년 12월

Всероссийск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интернет-конференция “Развитие этническ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и формирование россий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философские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25 декабря 2012. Набережночелн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ресурсов (г. Набережные Челны,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 주최:** 나베레지니 첼니 사회교육 기술 및 자원 연구소 (타타르스탄 공화국)
- 제목:** 민족의식의 발전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철학적 사회-문화적 시각
- 주제:** 1. 민족정책 이론과 방법론 2. 정부의 민족정책 3. 불가 지역의 민족사회와 민족정책 과정의 특수성
4. 민족의식과 전 러시아 정체성 형성의 변증법

Пят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заоч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еханизм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11-12 декабря 2012. г. Тверь, ООО «Цент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주최:** 경제연구센터 (트베리)
- 제목:** 러시아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조정 메커니즘
- 주제:** 1. 지역 경제 연구 방법론과 도구 2. 러시아의 단일 경제공간 형성의 문제 3. 국가 경제에서 지역 연방주체의 역할 평가 4. 특정 지역 연방주체 발전의 특수성 5. 러시아경제 개혁의 특수성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IV Ремезовские чтения “Образ как феномен провинц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я.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скусство.” 5 – 7 декабря 2012 г.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культуре Тюменской области, Тобольский историко-архитектурный музей-заповедник.

- 주최:** 튜멘 주 문화부, 토볼스크 역사-건축 박물관 (토볼스크, 튜멘 주)
- 제목:** 지방문화 현상으로서의 이미지: 역사, 고고학, 민족지학, 예술
- 주제:** 1. 전 국가문화 형태로서의 지방 문화 2. 서 시베리아에서 다양한 문화 및 민족 간 상호교류
3. 러시아 국가체제 속의 개인과 지방 4. 17-20세기 러시아지방의 역사, 전통, 일상생활



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нновации и традиции. Ценностные приоритеты человека и общества.” 3 декабря 2012. Сибирская открытая академия (Россия, Красноярск).

주최: 동 시베리아 개방 학술원 (크라스노야르스크)

제목: 혁신과 전통: 인간과 사회의 가치 우선권

주제: 1. 사회혁신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2. 창의성과 사고의 생성 3. 혁신 활동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 벤처 자본 4. 세계의 실제적 변혁을 위한 가치와 전통의 형성조건

2013년 2월

V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Глобаль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и инновацион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1-2 февраля 2013 г. Институт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Кавказа (г. Ставрополь,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주최: 카프카스 민족우호 대학 (스타브로폴, 스타브로폴 변경)

제목: 글로벌 경제 변혁과 지방의 혁신적 발전

주제: 1. 경제 변혁과 글로벌화 속에서 지방의 경제적 성장의 경향과 문제점 2. 지방의 안정적 발전 조건으로서 문화 간 소통과 대화 3. 지방의 투자유치분위기 조성의 사회심리적 문제들

X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Государство, общество, церковь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XX века.” ФГБОУ ВПО «Иван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21 февраля 2013. (г. Архангельск)

주최: 이바노보 국립대학교 (아르한겔스크)

제목: 20세기 러시아 역사 속의 국가, 사회, 교회

주제: 1. 20세기 러시아 정교회 2. 20세기 러시아 종교발전 3. 국가, 사회, 교회 간 철학적 상호이해 4. 20세기 러시아 국가와 사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бежи памяти: судьбы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Армении и Росс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18-20 апреля 2013,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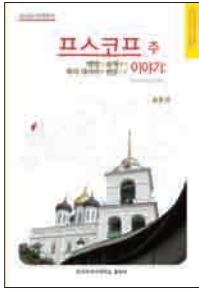
주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제목: 기억의 경계: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문화유산의 운명

주제: 1. 아르메니아와 러시아의 기독교 2. 비잔틴—대 아르메니아 왕국—고대 루시: 역사적 사실 3.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억하기 또는 망각하기? 4. 문화유산 보존과 업데이트 과정에서 권력과 사회의 전략



[국내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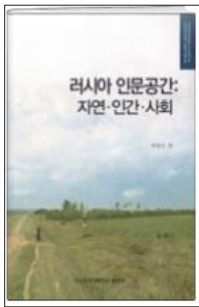


프스코프 주 이야기

저자 송준서 /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2012

프스코프 주가 러시아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903년으로, 862년 최초로 노브고로드 지역에 공국이 성립된 이후, 약 한 세대가 지나서이다. 이는 곧 프스코프 지역이 향후 러시아의 국가 발전과 역사, 문화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이곳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와 유럽을 드나드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가 특히 염두에 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스코프 지역의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 등의 영역을 골고루 다루면서 각각의 특성, 문제점, 당면 현안 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프스코프 지방의 경우만 소개, 분석하지 않고 프스코프가 속한 북서연방관구 그리고 러시아 연방 전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프스코프 지역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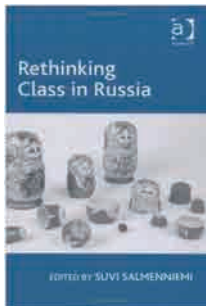
러시아 인문공간: 자연·인간·사회

라승도 편 /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2012

이 책은 러시아 인문공간의 형성과 발전에서 러시아 디아스포라까지 러시아 공간의 물리적, 추상적 성격에 대해 역사, 예술, 사회 분야에서 고찰한 연구서로서 ‘러시아 인문공간’의 형성과 발전을 러시아에 고유한 자연 환경과 인간생활의 상호관계 속에서 설명하였다.

제1부에서는 국가형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강으로 이뤄진 수로체계를 이용한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 ‘인문공간’의 형성과 발전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제2부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에서 일어난 도시 공간과 상징체계의 변화를 탐구한다. 제3부에서는 현대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공간의 의미 변화에 대해 캅카스와 농촌 공간의 이미지 재구성 작업을 통해 살펴본다. 제4부에서는 고려인과 아르메니아 공동체를 중심으로 러시아연방의 영토 안에 형성된 디아스포라의 타자 공간에 대해 짚어본다.

[구미서적]



Rethinking Class in Russia

저자 Suvi Salmenniemi / 출판사 Ashgate Pub Co / 2012

이 책은 러시아의 사회계층분화, 빈곤, 신 부유층의 출현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중앙을 중심으로 권력과 불평등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민족지학적, 문화 연구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제들은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들로 뒷받침된다. 또한, 서양과 러시아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중문화, 정치, 사회정책, 소비, 교육, 직업, 가족, 모든 일상생활의 영역 등을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새로운 계급 현상을 토론하면서 세계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소비에트의 위계적인 가치 체계와 계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러시아의 계급관계와 정체성, 그리고 탈냉전기의 계급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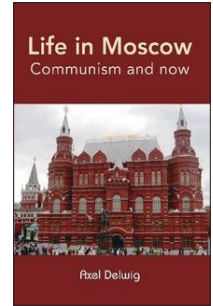


Life In Moscow; Communism and now

저자 Axel Delwig / 출판사 lulu.com / 2011

이 책은 1980년대 모스크바 시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은 쇼핑, 영화감상, 독서, 출근, 교회 가기 등의 일상생활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가 빈번하게 마주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 자신의 일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저자가 주인공이다. 각 이야기의 도입부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스타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 즐거움, 모호성, 낙관적 혹은 비관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각 이야기의 종결부는 최근까지 지난 25년간 해당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서양의 공통적인 인식 등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이 책은 러시아 및 기타 공산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 관심이 있는 광범위한 독자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 서적]

Без гнева и пристрасти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1990-х годов и их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России

저자 Р. Х. Симонян / 출판사 Экономика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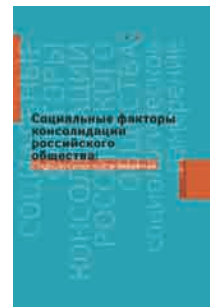
이 책은 1990년대 경제개혁과 같은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이 현대 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기술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 18년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과 결과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인구학적, 도덕 심리학적, 지정학적 관점 등에서 다양하게 사회 개혁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러시아 사회학자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통계 자료, 전문가 견해, 다양한 문헌들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Социальные факторы консолид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е измерение

저자 М. К. Горшков / 출판사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 2010

이 책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사회학연구소가 장기간 실시한 사회적, 민족사회학적, 정치·사회학적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분석을 통해 러시아 사회의 통합, 민족 간의 유기성, 세계관의 형성, 러시아인의 가치 지향성, 지방의 분쟁과 갈등이 사회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안정성과 단결성, 민족 간 상호이해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 이 책 집필의 중요한 의도이다.



(정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엄류드밀라, 김은미)

Russia-CIS FOCUS

2011년 8월 15일 제12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TEL 031 330 4852 / FAX 031 330 4884 / www.rus.or.kr

서쪽으로 날아간 쌍두독수리

김민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역사학 박사 / 서울대학교 철학박사



Russia-CIS FOCUS 안내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에서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CIS Focus'는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슈메르의 신 사누르타와 그의 상징인 쌍두독수리 (기원전 4천 년 전의 4천 년 전)

한편, 러시아를 지배했던 타타르족, 즉 튀르크의 이웃 민족 튀르크어(타타르어)의 문명과 정관문과 독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타타르족이 튀르크 계통이며, 고대 튀르크인들이 쌍두독수리를 숭배했었다는 점이다.

영문학술지 REGION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영문 국제저널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를 2012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러시아, 동유럽 전문가들이 편집진으로 참여한 본 저널은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미국 Slavica 출판사를 통해 발간되며 현재 제2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본 저널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하고 있으며, 논문뿐만 아니라, 서평도 매호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해당 지역의 핵심 이슈를 연구한 유라시아 지역 학자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정기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기존의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저널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본 저널의 목차와 논문 내용은 현재 Project MUSE의 사이트 (<http://muse.jhu.edu/journals/region>)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TEL. 031-330-4852 FAX. 031-330-4851
<http://www.rus.or.kr>



슬라브研究 논문투고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슬라브研究』논문투고에 대해 안내 말씀 올립니다.

『슬라브研究』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발간되고 있고,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깊이있고 참신한 연구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 『슬라브研究』발간일 : 2013년 3월 30일 (제29권 제1호)

· 논문 투고 마감일 : 2013년 1월 20일

『슬라브研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현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시 필수기재사항

- 1) 논문 영어 제목 및 초록
- 2) 논문키워드(국문5개, 영문5개)
- 3) 관심분야 3가지(국문)

- 홈페이지 : www.rus.or.kr
- e-mail : irspress@hanmail.net
- Tel : 031-330-4895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리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研究』 편집위원회 드림.

